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21.90	↑ 코스닥	723.52
	(+0.85)		(+3.89)
↓ 금리 (미국 9년)	2.490	↑ 환율 (원/달러)	1460.85
	(-0.015)		(+5.8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내 경제인 대화'가 열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 총수 2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 국내기업 인맥 총동원 글로벌 대관조직 강화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D-10**  
삼성·LG·SK 등 美대관라인 강화  
현대차·한화, 외교관료 출신 배치  
정부, 민간 합심 대응책 마련  
분주 통상쟁점 점검·수출 지원책 마련

이달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2주가량 남은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인맥을 총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촉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대관 조직을 강화하는 등 대미 네트워크 교류를 확대해 대내외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개별 기업 총수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거나 신규 투자를 발표하는 등의 구체적 행동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사실상 정부 기능이 와해상태여서 제 기능을 못하는 등 대내외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대관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다바이스경협(DX) 부문 경영지원실에서 해외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GPA)'팀을 실로 승격하고 김원경 실장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LG는 2022년 LG그룹 워싱턴사무소를 열고 LG이노텍 법무실장 출신인 임병택 LG전자 전무를 공동 소장으로 임명했다. 같은 해 영업한 조혜인 공동 소장이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미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도 2025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미국 대관 라인을 강화했다. S

K이노베이션은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김필석 박사를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환경과학기술원장으로 영입했다. 김필석 CTO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에너지부의 50여 개 프로젝트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은 미 외교관료 출신들을 승진시키고 대관 조직을 강화하는 중이다. 현대차는 회사 최초로 외국인 CEO인 호세 무뇨스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또 미 외교관료 출신인 성 김 고문을 전력 기획담당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외 사업 총괄 대표이사인 마이클 쿨터 전(前) 레오나르도 DRS 글로벌 법인 사장을 선임했다. 쿨터 총괄 대표이사 내정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한화그룹의 글로벌 방산 사업 전반을 맡는다. 그는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부차관보·국방부 차관보 대행·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을 역임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정부도 민간과 합심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맞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통상 쟁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실적 제고를 위해 관련 마케팅 및 각종 인증 등 지원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제1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의 산업전망·통상 대응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기능이 사실상 와해 상태로 치달으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신규 투자 발표 등 구체적 행동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김연세, 구남영 기자 kys@metroseoul.co.kr

## 현대차그룹, 올해 국내 24.3조 역대급 투자

**전동화 전환·SDV·수소제품기술 등 불확실성 시대, 핵심 미래역량 확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에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4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현대차그룹 투자액은 이전 국내 최대인 2024년(20조4000억원) 대비 19%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의선 회장은 올해 신년 메시지를 통해 위기에 맞서는 관점과 자세, 현대차그룹의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위기 극복 DN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고, 훌륭하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왔으며, 위기 이후 더 강해졌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현대차그룹은 ▲연구개발(R&D) 11조5000억원 ▲경상투자 12조원 ▲전략투자 8000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연구개발 투자는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수소제품 및 원천기술 개발 등 핵심 미래역량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현대차그룹은 성능과 연비가 뛰어난 하이브리드 모델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 등을 앞세워 전기차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전기차 신모델 개발을 꾸준히 확대하며 전동화 전환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30년 경제형에서부터 럭셔리, 고성능까지 21개 모델의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기아도 2027년까지 다양한 목적기반차량(PBV)을 포함해 15개 모델의 전기차 풀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

SDV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통해 2026년까지 차량용 고성능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SDV 페이스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양산차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상투자는 전기차(EV) 전환 및 신차 대응 생산시설 확충, 제조기술 혁신, 고객체험 거점 등 인프라 보완 등에 투입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춥다 추워"… 최강 한파에 발걸음 재촉  
한파 특보가 발효된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美 인플레이 재확산 우려... 한은, 섴법 복잡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7% 돌파  
올해 첫 FOMC, 금리 동결 확실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계획이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이달 한국은행의 금리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이 공개한

12월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 위험 증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의사록에는 "참석 위원들은 최근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무역 및 이민정책의 잠재적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보편관세, 감세, 불법 이민자대거 추방, 대규모 복지 지출 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게 된다.

또한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채권 발행을 늘려 국제 가격을 하락(국제 수익률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중장기 국제 수익률이 연달아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 윤 '탄핵', 인용 62% 기각 33%... '체포' 필요 59% 과도 37% [NBS]  
▲ 이재명, 박정호 무죄에 "판결 환영... 기소행위 엄정 조사·처벌해야" /사진 뉴시스

▲ 여 "공수처 위험적 체포영장 집행 중단... 야 사기 탄핵 시도 멈춰야"  
▲ 야6당, '제3차 추천' 내란 특검 재발의... 이르면 14일 처리

▲ 국힘 경찰청 찾아 "국수본부장, 특공대 투입 검토한 적 없다고 해"  
▲ 환경장관 "계엄, 대단히 부적절... 최태행, 필요한 일 할 것"



# “SK하이닉스 HBM 개발속도, 엔비디아 보다 더 빠르다”

## 최태원 SK회장-젠슨 황, 면담

“코스모스 등 퍼지컬 AI 의견 교환  
한국 제조 노하우에 대해 전했다”

“올해 CES의 모든것에 AI 들어가  
AI 데이터센터, 중점 과제로 추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세계 최대 IT-기술 박람회 CES 2025에서 만났다. 최 회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 수준보다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CES 2025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이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다. 최 회장은 3년 연속 CES에 직접 참석했다.

최 회장은 젠슨 황과의 만남에서 HBM에 관한 추가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이 SK 전시 부스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SK

디아를 조금 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과거, 개발을 빨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급량에 대해서는 실무진 내에서 모두 결정 완료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코스모스(Cosmos) 등 퍼지컬 AI에 관한 의견을 교환 했고, 앞으로 갈

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제조 노하우에 대해서도 전했다”고 말했다.

코스모스는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물리 AI 개발 플랫폼이다. 최첨단 생성형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FM)과 고급 토크나이저, 가드레일, 가속화 비디오 처리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됐다.

최 회장은 이날 AI 데이터센터 등 SK그룹의 AI 사업 방향성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최 회장은 “올해 CES에서는 모든 것에 AI가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AI 데이터센터 관련 비즈니스를 중점 추진 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미국 진출 구상에 대해서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은 발전소사업뿐 아니라, 반도체·쿨링(열관리) 단계 등 모든 에너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미국에는 SK가 가진 포트폴리오와 많은 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SK그룹은 이번 CES에서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주제로 부스를 꾸리고 AI 데이터센터 솔루션과 HBM3E 16단을 포함한 AI 반도체, SKC 유리기관 기술 등을 선보였다. 최 회장은 부스에 방문해 SKC 유리 기관 모형을 들고 “방금 팔고 왔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1면 ‘현대차그룹, 올해 국내...’서 계속

## 기아 화성 EVO 플랜트 올해 하반기 완공하고 맞춤 PBV 전기차 생산

현대차그룹은 올해도 EV 전용공장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지난해에는 기아 광명 EVO 플랜트를 가동하고 소형 전기차 EV3 생산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기아 화성 EVO 플랜트를 완공하고 고객 맞춤형 PBV 전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에서는 전기 초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을 시작으로 다양한 차종을 양산할 계획이다.

전략투자는 자율주행, SW, AI 등 핵심 미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행된다.

국내 투자를 사업군별로 분류하면, 완성차 분야 투자액이 16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완성차 분야 외에 부품, 철강, 건설, 금융 및 기타 사업 분야에서도 신사업 발굴, 핵심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조원의 투자를 단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

# 롯데, 그룹 미래전략 점검... “강도높은 쇄신 필요”

## ‘2025 상반기 롯데 VCM’ 개최 신동빈 회장 비롯 약 80명 참석 각 계열사 CEO에 메시지 전달

롯데가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 상반기 롯데 VCM’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 VCM은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해 각 계열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롯데그룹의 경영전략 회의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사업군 총괄대표, 계열사 대표 등 약 80명이 참석한다. 지난 2023년부터 VCM에 참석한 온 신유열 부사장도 올해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다. 롯데는 그간 대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온 만큼, 이번 상반기 VCM에서 그룹의 향후 방향과 전략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무·인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동시에 신동빈 회장이 각 계열사 CEO들에게 그룹 경영 방침과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는 게 롯데지주 측 설명이다.

앞서 롯데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따라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며 수익성 중심의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렌탈을 매각하고, 롯데헬스케어 사업을 철수하는 등 비핵심 사업 정리를 가속화한 바 있다.

신 회장 역시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혁신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올 한 해 더욱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롯데는 VCM에 앞서 그룹 내 인공지능(AI)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AI 과제 쇼케이스’도 진행한다. 이번 쇼케이스에는 롯데이노베이트, 대흥기획 등 9개 계열사가 참여해 AI 활용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대표적으로, 롯데이노베이트는 생성형 AI 플랫폼 ‘아이멤버’를 활용한 회의록과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시연하며, 대흥기획은 광고 마케팅 플랫폼 ‘에임스’의 실무 활용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AI 기술을 안전 관리에 적용한 사례와 구체적인 기능을 발표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1면 ‘美 인플레이 재확산...’서 계속

## 韓 금리인하, 美 동결편 원화 약세·강달러 심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4.7%를 넘기면서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준 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인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첫 FOMC인 오는 28~29일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면서 시장에서도 95.2% 확률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준은 “통화정책 전망을 논의하면서 참석 위원들은 통화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며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문제는 한은 금통위의 결정이다.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화약세도 걱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3.0%)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상단(4.5%) 기준 1.5%포인트(p)다.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경우 금리차이는 1.75%p로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강달러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 전까지 입수되는 데이터를 근거로 금리 행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달러와 트럼프 리스크도 있는 만큼 1월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성수품 물량 1.5배 확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당정, 가격안정·소비진작 협의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혜택  
대형마트 등 할인지원 600억 투입

당정이 9일 설연휴를 대비해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 상향하는 등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전 3주간 배추·무, 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년대비 1.5배 확대하고, 정부 할인지원(20%)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하여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도 신속

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설 성수기인 1월 10일에서 2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을 평년대비 1.5배인 16만8000톤(t)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설 대책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체 할인 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소비자들이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 싼값에 농축수산물 구매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농협을 통해 다양하고 실속있는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물량이 충분한 한우는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전년대비 12.5% 늘려 공급한다. 사과·만감류·포도 등으로 구성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는 10만 상자를 공급한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제품을 비롯해 쌀 가공품,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선물세트 등에 대한 할인 지원에 나선다.

당정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대 11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및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와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폐업 지원금도 최대 4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또한 당정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 대상 법인세·부가세·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교통비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

/세종=김연세·박태홍 기자 kys@



# 혁신교육 도구에서 단순자료 격하 '학습효과 검증·부작용 방지' 시급



/유토이미지

## 위기의 AI 디지털 교과서

오는 3월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초·중·고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단순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AI 교과서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에듀테크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흔들'

AIDT는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기술을 이용해 학습 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디지털 기반 교과서다. AI는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자주 틀린 문항의 주요 개념을 다시 설명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제시하는 등 맞춤형 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9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한 결과, AIDT는 법 개정으로 인해 필수 교재가 아닌 선택적 학습 보조 자료로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입 3개월을 앞두고 교육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법 개정으로 참고서와 같은 자료 규정 교육부, 반발... 재의요구 건의 방침 시·도 교육감 성향 따라 방향성 좌우

교육부는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발표 이후 2년 넘게 AIDT 도입을 준비해 왔다.

애초 계획은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DT를 우선 도입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검정 심사를 통과한 12개사 76종의 AIDT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참고서와 같은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의무 채택 대상이 아니며 학교 재량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AIDT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AIDT가 시행 직전에 무산될 경우 현장 혼란과 학습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법안 통과 직후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무상·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학습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 교과서 영어 최종 합격본의 시연 행사에서 관계자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의 주요 기능을 토대로 참여형 수업 및 학생 맞춤형 교육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엇갈리는 전망

AIDT의 활용 여부는 시·도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천, 세종 등은 AIDT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구, 경기, 제주 등은 예산을 확보해 전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먼저 효과를 검증한 뒤 교과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AIDT를 교과서처럼 활용할 계획"이라며 전면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외에 울산과 전남 등 4개 지역은 선도 학교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오는 17일 열리는 AIDT 관련 청문회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DT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AIDT가 학생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시켜 이로 인해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꾸준히 AIDT 도입을 반대해 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은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되지 않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초·중·고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전교조 등 126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초·중·고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거부'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시스

회의를 통과하자 교과서 개발 업체들은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업체들은 다 죽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들여가며 교과서를 개발했다"면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교육 방식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스웨덴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지난해 이를 폐지했으며,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에서도 교실 내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으나 2023년 이를 폐지하고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완전히 중단했다. 대신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등 아날로그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 따르면 스웨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2016년 555점에서 2021년 544점으로 11점 하락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 일부 나라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실 내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 혼란 가중 일부 도입 국가들 아날로그 회귀 추세 전문가들 "더 많은 연구, 준비 필요"

### ◆디지털교과서, '미래 교육의 나침반' 되려면

AI 디지털교과서가 '미래 교육의 나침반'이 되려면, 기대와 우려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AIDT의 효과성 검증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예산 부담과 인프라 문제 해결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교육 전문가는 "기술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예산 문제와 인프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술과 교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이미 처리됐지만 도입 찬반 논란이 여전히 큰 만큼 그 효과성을 다시 검증해 보자는 취지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와 대구, 광주 등 일부 시도 교육감, AI 교과서 개발 업체 대표 등 18명이 채택됐다.





# “효율경영 강화로 신뢰 구축 주주와 함께하는 혁신성장”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금융지주가 경영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있고,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는 위기극복을 위한 효율 경영과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과 혁신도 핵심과제로 꼽혔다. (편집자주)



## KB 금융그룹

① 양 종 희 회장

###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조직개편

금융지주
2024년
3부문 7담당(준법감시인 포함) 6본부 30부
2025년
3부문 8담당(준법감시인 포함) 4본부 31부 담당+1, 본부-2, 부+1
은행
2024년
18그룹 31본부 139본부(부서급 조직 포함) 13개 지역영업그룹
2025년
18그룹 27본부 117본부 12개 지역영업그룹 본부-4, 부+22

자료/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견고한 신뢰와 안정감을 기반으로 효율경영과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격변이 예상되는 한 해로 대내외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요소들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KB는 고객과 시장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견고한 신뢰와 안정감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 ◆ 탄탄한 KB... “업계 혁신 주도”

KB금융은 지난 3일 그룹 전체 경영진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의 전략방향 및 목표 등을 논의하는 ‘2025년 상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는 효율과 혁신을 통해 KB의 체력을 더욱 탄탄히 할 계획이다.

양 회장은 “군살없는 탄탄한 KB를 만들기 위해서는 낭비없는 효율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추진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자본이 배분되고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고객수익률, 순고객추천지수(NPS),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이제는 모든 것이 정확한 데이터와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화했다면 다음 단계는 업계의 표준으로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그는 “고객이 자신의 공간에서 비대면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대면채널도 고객의 공간으로 찾아가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을 만나는 채널을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은행 전략본부에 ‘대면채널 혁신’이란 미션을 부여했다. 기존의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을 만나는 채널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파트너십도 지속한다.

양 회장은 “이업종,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며 “임베디드 금융(비금융 기업이 자사 플랫폼 내에 금융 기능을 탑재해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휴 사로부터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공동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만의 상품, 서비스로 경쟁하기 보다 다른 기업의 플랫폼, 서비스와 결합할 때 파급력과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성과도 커진다”며 “이를 바탕으로 돌봄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임팩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겠

다”고 덧붙였다.

#### ◆ 조직개편, 효율·혁신에 방점

조직개편은 ▲고객·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조직 ▲본질에 집중하는 효율적 조직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직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했다.

먼저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준법감시인 산하에 있던 본부급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담당(C-level)으로 확대 재편됐다. 이와 함께 지주 및 계열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부서명을 ‘준법추진부’로 일원화했다.

디지털금융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인공지능(AI) 조직에도 힘을 실었다.

KB금융은 디지털플랫폼, AI, 데이터 전 영역의 콘트롤타워인 ‘디지털혁신부’를 새로 만들었다. 디지털 혁신부는 그룹 전체의 그룹 디지털의 포괄적 전략 수립과 계열사간 유기적인 협업을 지원한다. 차별화된 AI 역량을 확보하고 생성형 AI를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금융 AI센터는 2개로 확대했다.

실행력 중심의 효율적 조직 구현을 위해 부문·담당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은 슬림화했다. 경영진별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부문·담당임원 체계는 유지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사업부문과 디지털부문, IT 부문은 지주의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계열사 대표 출신을 부문장으로 임명했다.

그룹 전체적으로는 과감한 조직 슬림화를 실시했고, 계열사는 영업조직을 제외한 관리 지원조직을 최대한 슬림화 한다는 원칙 하에 전반적으로 조직 체계를 간소화했다.

#### ◆ 지속가능한 밸류업 추진

양 회장은 지난 6일 주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친필 서한을 보내 밸류업 계획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해 12월 9일 비상계엄 직후 투자자 우려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그룹 및 일대일 미팅을 갖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와 소통하고 있다.

양 회장은 이번 서한을 통해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금리·환율 등의 변동성 확대로 영업환경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주주들께 약속드린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 “헌재, 내란죄 제외 권유했나” “김용현, 국무회의 서명 지시”

(與)

(野)

## 비상계엄 본회의의 현안질의

민주당 “김용현, 참석자 이름 남겨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 갖추려해”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 조사 바라”  
국민의힘,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지적  
헌재 “변론절차, 공정 진행 되고 있어”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본회의의 현안질의가 9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져물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현안질의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 게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 물었다.  
한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하고 위반시는 처단한다’는 포고령 5호에 대해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한 의원이 언급한 포고령 모두 “현 상황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

품부 장관을 불러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참석자 이름이라도 써서 남겨달라”고 말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실명을 밝히라고 했다. 송 장관은 “그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누군가 회의 마지막에 서명을 하고 가라고 했는데,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고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었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 국무위원에게 서

명하라고 했다. 저희는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회상했다.  
한정에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못했다.  
한 의원은 바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 “계엄 관련 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하게 노력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이 사람은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이다. 해당되는 국무위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공수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정안정과 헌법과 사법 절차로 넘어간 계엄 관련 절차를 차분히 진행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한달을 아까웠다. 저는 국론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린다”고 토로했다.

나 의원은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단행으로 민생경제는 더 불안해졌고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에서 무법, 불법, 위법, 탈법이 판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듀(Due)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 완성이라는 그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을 통합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청구인 대리인이 (헌재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나”라며 “이를 권유한 사실이 있나”라고 김 헌재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된 재판으로, 일체 의혹도 없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권성동, 김상욱에 “당론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 찬성파)

김 의원 “당론 아닌 양심 따라 표결 보수의 가치 위해 따르지 못한 것 당내 압력에 소장파 위축된 것 사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탈당을 권유한 것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꾸준히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당론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올라온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의의견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을 유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8일)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의총 등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

지 않은 점을 두고 문제 삼았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라달라고 김 의원에게 말한 것이 탈당을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보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좀 더 전문성 있는 의원이 행안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피감기관을 둔 행안위에서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과 우리가 중요한 법안을 둘러싸고 표결을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한 명의 이탈표도 없다”며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특별한 입장이 아니고 당 108명의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서 결정하는 일

종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당론을 결정할 때 의총을 통해서 모든 의원들이 출석해서 본인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주장을 충실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저도 국민의힘의 당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를 기준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면서 “그러나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당론이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울고 그름의 판단 때문에 예외적으로 따

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내에서 발언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 모자람도 있다.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니까 당 내 의사결정 과정도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으면 한다”면서 “의총 발언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는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내 소장파가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김 의원 본인이 권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따녀사냥 하듯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로 인격적 흠을 낸지는 좀 됐다”며 “제가 녹음할 상황도 아니고 핸드폰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상욱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주의를 내세우니까 저의 가치와 당의 가치가 같다”면서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우리 당의 가치를 못 지키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野, ‘대통령 경호체 폐지’ 법안 발의

尹 체포영장 집행 막으며 ‘논란’ 군사정권 산물 비판도 나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다수 발의되고 있다. 대다수의 법안을 살펴보면 대통령실 소속인 경호처를 없애고, 대통령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맡는 내용으로 돼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경호처 폐지와 관련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경호처(차관급)는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돼 있다. 1실 3본부(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지원본부) 체제로 구성됐으며 특정직, 일반직을 포함해 750명에 달한다.  
경호처의 시작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부터다. 당시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해 제2공화국까지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다.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체제로 정식 창설된 것은 1963년으로, 당시 명칭은 ‘대통령경호실’이었다. 이후 독립 기관으로 존재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비서실 산하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된

바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독립기관인 대통령경호실로 승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 때처럼 경호처 격하는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로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보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역사 때문에 야권에서는 경호처가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기에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인력이 수사관을 막은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고 있기에 별도 기구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예진 기자 syj@

# 與野, 국정협의회 실무협의 ‘첫발’

최상목, 우원식, 권영세, 이재명 참여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의제들을 확인했고 이 의제들을 각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다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김

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제 미공개 이유에 대해 “오늘 실무협의회에선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새로 만나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다시 협의를 해서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협의회를 할 수 있으면 협의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실무협의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홍 기자



*Vivid*  
**STRAWBERRY  
 MOMENT**



하와이안 베리볼  
 Hawaiian Berry Bowl  
**7.4** ICE ONLY  
 \*스푼이 함께 제공됩니다

생딸기주스  
 Real Strawberry Juice  
**6.9** ICE ONLY

생딸기&생바나나 라떼  
 Real Strawberry&Banana Latte  
**6.9** ICE ONLY

**ANGELINUS**



# 은행, 디지털 전환 속도... AI·플랫폼 중심 금융혁신 박차

지난해 5대 은행, 전산투자 19%↑  
디지털경쟁력 위해 무형자산 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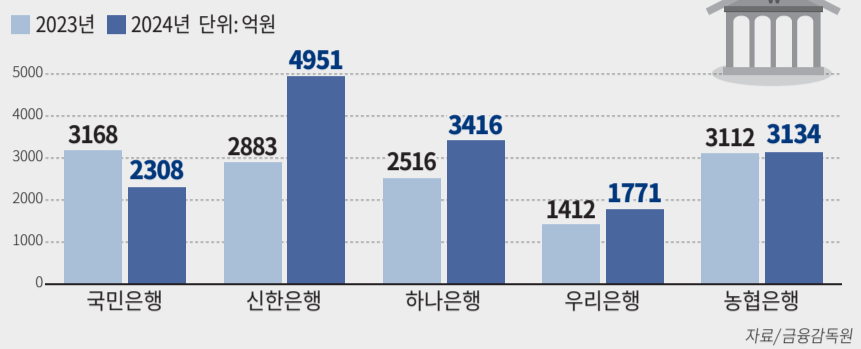
신한은행, 디지털이노베이션 신설  
국민은행, 금융AI센터 확대 개편  
하나은행, 디지털혁신그룹 확대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들이 디지털, 플랫폼 등 전산투자에 1조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로 자금이체, 대출 등 금융업무 하는 고객이 늘면서 디지털 전환에 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컴퓨터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 규모는 지난해 3분기(7~9월)말 기준 1조5579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조3091억원)과 비교하면 19% 증가한 수준이다.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브랜드가치(상표권), 기술력, 인적자원 등을 말한다.

3분기 5대은행 무형자산 현황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컴퓨터소프트웨어·시스템개발 무형자산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4951억원으로 1년전(2883억원)보다 71.7%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2023년 3분기 말 2516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3416억원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시스템개발 무형자산이 35.8% 늘었다. 우리은행은 같은기간 1412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25.4%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3분기 3134억원으로 1년전(3112억원)과 비교해 0.7% 늘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분기 2308

억원으로 같은 기간 27.2% 줄었다.

시중은행들이 컴퓨터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비대면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이 사용하기 쉬운 금융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고객층을 넓히자 시중은행들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컴퓨터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비 관련 자산규모를 더 확대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내·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통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민은행은 기존 금융AI센터를 1·2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각 센터장에 LG와 엔씨소프트 출신 인사를 선임했다.

신한은행은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디지털이노베이션(영업추진4)그룹을 신설했다.

하나은행은 디지털 전략 기능과 신사업 추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AI·디지털그룹을 ‘디지털 혁신그룹’으로 확대 개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에는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AI를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AI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IT 관련 인력과 예산은 늘고 있지만,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인 만큼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 신한라이프 영업전략회의 “시장 판도 바꾸는 영업 경쟁력 혁신”

신한라이프는 2025년 성공적 영업경쟁력 혁신을 위한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영업전략회의는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을 비롯해 각 채널 사업그룹장과 지점장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C, DB, B2B 사업그룹 순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첫 번째로 열린 FC채널 행사에서 신한라이프는 올해의 경영전략 슬로건을 ‘TOP2를 향한 질주, 밸류업(Value-Up), 투게더(Together)’로 발표하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영업 경쟁력 혁신’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신한라이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가장 다르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로 나아갈 예정이다. 중장기 가치 성장에 중심을 두고 ▲각 영업채널 차별화 ▲상품 및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 ▲영업 지원을 위한 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사업계획 달성을 추진한다.

이영종 사장은 “지난 2024년 혁신과 도전을 통한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TOP2 가속화에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린다”며 “2025년 어려운 영업환경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영업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KB라이프생명 보험금 청구 디지털 담보범위·한도 확대

KB라이프생명이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한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금 청구 담보범위와 청구금액 한도 증액으로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존에 입원·수·통원 등 일부 담보에 한정된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가 사망·재해를 포함한 모든 담보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사망 보장의 보험금 청구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1억원으로 상향했다.

사망·재해 보험금 청구 시 서류준비가 부족한 경우 고객이 비대면으로 직접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기존 평균 0.5일에서 오는 2027년까지 0.3일로 줄여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생명보험사가 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금융위, 13일부터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율 인하

시중은행 주담대 0.55~0.75%p ↓  
저축은행은 1.64%서 1.24%로 내려

앞으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사가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독 규정상 별도의 항목을 가산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독 규정상 별도의 항목을 가산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각 금융협회는 지난해 말 회원사에 적용할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은 평균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했다. 이어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0.83%에서 0.72%p 내린 0.11%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

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떨어진다. 저축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체계적으로 산출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9억 달러 돌파

반도체·자동차 이어 세번째 규모  
박상우 장관 “2조 달러 시대 이끌 것”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누적 기준으로 1조 달러(1458조원)를 넘어섰다. 지난 1965년 첫 해외수주 이후 59년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억1000만 달러를 수주해 누적 수주금액이 1조 달러(1조 9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기업(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K-도시 및 K-철도,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한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

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80% 이상 집중적으로 진출해 왔다.

다만 최근 3년 간(2022~2024)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도 이뤄졌다.

공종 기준으로는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했으며, 최근에는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가 강세를 나타냈다.

수주국가별로는 누적 기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7.7%를 차지했으며 ▲UAE(8.4%) ▲쿠웨이트(4.9%) ▲싱가포르(4.8%) ▲베트남(4.8%) 등의 순이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이 14.5%를 가장 비중이 높았고 ▲삼성물산(9.2%) ▲삼성E&A(9.0%) ▲현대ENG(7.3%) ▲GS건설(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서울원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전타입 마감

청약 평균 경쟁률 18.55대 1 기록  
전용 74㎡형 경쟁률 552.67대 1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의 무순위 청약에 1만명이 넘게 몰려 전타입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9일 서울원 아이파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8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558가구 모집에 1만353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18.55대 1로 접수 마감됐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전용면적 74㎡형으로 3가구 모집에 약 1650여 명이 몰려 552.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 청약 물량 중 전용면적 74㎡ 3가구와 84㎡ 111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용 105㎡, 112㎡, 120㎡ 등 중대형 면적이다.

1순위 청약 당시 1414가구 모집에 2만1219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14.94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전용면적 59㎡A형으로 19가구 모집에 4054명이 몰려 268.53대 1의 경쟁



‘서울원아이파크’ 건보주택을 찾는 방문객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전지원 기자

률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많은 242세대를 모집한 105㎡A형은 603명이 접수해 2.49대 1, 241세대를 모집한 120㎡A형도 521명이 접수, 2.61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112㎡B형 ▲112㎡C형 ▲120㎡C형 ▲143㎡형 ▲145㎡형 ▲159㎡형 ▲161㎡형 ▲170㎡형은 공급수량에 비해 신청자가 적어 미달됐다.

112㎡C형의 경우 18가구 모집에 9명이 접수, 절반에 불과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 전력기기업계, 달러강세에 ‘날개’ 을사년 분기·연간실적 전망 청신호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수요 급증  
외환차익으로 기존계약 수익 개선  
“불확실성 여전... 낙관은 말아야”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산업계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력기기업계에는 수익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전력기기업의 대부분은 해외 사업 확대가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환 차이 증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기기업들이 올해 견고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내 인공지능(AI) 구동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로 인한 수요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초고압 변압기 투자 완료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도 전력기기업계의 분기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9855억원으로 전년대비 23.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능력 확충과 계절성으로 인한 지렛대 효과에 교환율 수혜가 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3분기 북미 배전변압기의 공백이 있었으나 4분기는 원활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LS일렉트릭의 4분기 매출액은 1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오른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887억원으로 전년대비 30.3% 증가할 전망이다. 전력인프라 부문에서 북미 항 변압기 매출로 교환율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효성중공업 또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매출액은 1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

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1258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98.5%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환율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해 무조건적인 낙관은 어렵다는 지적도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력기기업계 전반적으로 수출 규모가 늘고 있는 만큼 실적 측면에서 고환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경우 원자재값 상승 등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기술 발전, 북미의 노후 전력망 교체에 비롯해 유럽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전력기기업 시장의 호황은 올 한 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이사(맨 앞 오른쪽)가 7일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열린 ‘서울대-한화에어로 허브’ 개소식에서 김영오(맨 앞 왼쪽) 서울대 공과대학장에게 헌편을 전달하고 있다. /한화에어로

## 한화에어로, 항공·우주분야 산학협력 강화

서울대 등 10곳과 미래과제 수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에 나선다. 첨단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규사업인 항공엔진과 우주산업 분야의 기술도 확보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일 서울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를 설립하고, 미래 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서울대를 포함해 건국대, 부산대, 연세대, 인하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 항공대 등 모두 10곳과 2023년부터 맺어온 산학협력 네트워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를 구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는 앞으로 첨단 방산기술 및 항공엔진, 우주항공 기술 등의 미래 연구과제 50건을 중장기에 걸쳐 수행한다.

우주항공 분야는 항공엔진 부품 소재 및 우주 발사체 등 과제를 맡은 서울

대를 비롯해 건국대, 항공대, 충남대가 관련 과제를 연구한다. 방산기술은 부산대(무인 중전투 차량 통합 열관리 제어 등)와 인하대(인공지능 기반 표적 탐지 등), 충북대(유도무기 관련) 등이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KAIST는 자율주행과 우주 발사체(설계 및 제어) 분야 연구를 함께 맡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존에 추진해 온 인재의 ‘발굴-육성-채용’으로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인력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10개 대학 외에도 추가적으로 국내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의 채용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R&D인력도 지난해 250여명에서 2028년까지 국내에 서만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와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덩치 커진 ‘K-AI 얼라이언스’... CES 호령

韓 AI 혁신 동맹 자리매김  
트웰브랩스 등 3곳 신규 합류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혁신기업 연합 ‘K-AI 얼라이언스’에 국내 기업 3곳이 합류했다.

SK텔레콤은 8일(현지시간) CES 2025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들과 함께 ‘IR 피칭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 5곳이 참여했다. 멤버사들은 ▲엣지 AI 기술의 미래(페르소나AI) ▲AI를 활용한 동물과 인간의 항암제 효능 예측 기술(임프리메드) ▲AI 모델 훈련 및 서비스를 위한 AI인프라 플랫폼(레블업) ▲영상을 이해하는 멀티모달 AI 모델(트웰브랩스) ▲AI 기반 차폐 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모코그) 등 자사의 혁신적인 AI 기술과 올해 계획 및 추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번 CES 2025에서 3곳이 K-AI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 신규로 합류한 기업은 ▲AI 영상 분석 기업 트웰브랩



SK ICT 패밀리 데모룸에 차세대 AI DC, AI 미디어 스튜디오, 리트머스 플러스, 슈퍼노바, 엑스칼리버 등 SKT의 다양한 AI 기술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SK텔레콤

스(TwelveLabs) ▲AI 검색서비스 개발 기업 라이너(liner) ▲AI 디지털 헬스기업 이모코그(emocog)다. 이로써 SK텔레콤이 주도하는 ‘K-AI 얼라이언스’는 출범 2년 만에 총 25개사까지 확대됐다.

202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트웰브랩스’는 영상을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는 AI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6월 엔비디아의 자회사 엔벤처스 등으로부터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SK텔레콤도 지난해 300만 달러를 투자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이너는 학술 정보, 논문 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한 출처와 답변을 제공하는 AI 검색 서비스 개발 기업이다. 라이너는 현재 글로벌 220여 개국에서 1000만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했고, 김진우 라이너 대표는 최근 포브스가 선정한 ‘2025년 주목해야 할 최고의 AI 창업자 33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모코그’는 경도 인지 장애의 예방, 진단, 치료 전 주기에 걸친 솔루션을 개발하는 디지털 의료 혁신 기업이다. 고령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지 장애 선별 도구와 신뢰할 수 있는 인지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K-AI 얼라이언스를 한국을 대표하는 AI 혁신 동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외연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까지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항공권 최대 96% 할인”... 항공업계, 새해맞이 특별 프로모션

아시아나 프라하 취항... 할인 쿠폰  
이스타 태국 등 21개 노선 특가 판매  
에어서울 신년맞이 감사 이벤트

국내 항공업계가 새해 여행수요를 겨냥한 프로모션에 나선다.

무안 제주항공 사고 이후 마케팅 활동을 중단했지만 새해 해외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유럽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체코 프라하 노선의 신규 취항을 기념해 아시아나클럽 회원 선착순 4100명에게 항공권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5만원 및 추가요금 좌석 할인 쿠폰 증정 프로모션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새해를 맞아 항공권을 최대 96% 할인해 판매하는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상 노선은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등 21개 노선이다.

에어서울도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신년 맞이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월 12일까지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응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제선 왕복항공권, 국내선 왕복항공권, 국제선 1만원 할인쿠폰 등을 선물로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BMW 뉴 M5.

## BMW코리아, ‘뉴 M5’ 국내 공식 출시

제로백 3.5초... 1억6690만원

BMW 코리아가 BMW M 하이 퍼포먼스 세단 최초로 전기화 기술을 도입해 향상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세단 ‘BMW 뉴 M5’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BMW 코리아는 9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적용한 7세대 완전변경 ‘BMW 뉴 M5’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1984년 M5를 출시한 이래 처음으로 M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18년에 출시한 6세대보다 4.4km 증가한 1L당 12km의 연비를 확보했다. 1회 충전으로 전기 모터로만 갈 수

있는 거리는 61km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제로백)은 3.5초다. 8단 M 스텝트로닉 자동변속기,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M xDrive를 통해 가속 성능과 주행 안정성을 모두 잡았다.

외관 디자인은 고성능 스포츠 세단 특유의 역동성을 강조했고, 실내에는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얻은 빨간색 포인트가 적용됐다. 이 외에도 M 전용 스포츠 배기 시스템과 M 모델에 특화된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을 적용해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BMW 뉴 M5의 가격은 1억66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 조주완 “구독사업 3배 확대… 불확실성 대응 전략 준비 완료”

(LG전자 최고경영자)

**LG, 2025년 사업 전략 발표**  
플랫폼 서비스 매출 5배 성장 제시  
B2B 매출 비중 45%로 확대 목표  
로봇 기반 신사업, 휴머노이드 개발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이제는 다른 차원의 정교한 실행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LG전자는 어떤 시나리오든 다 준비해놨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시간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사업 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CEO를 비롯해 류재철 HS사업본부장(사장), 박형세 MS사업본부장(사장), 은석현 VS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조주완 사장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과 관련해 “어느 해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렵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도 “여유 ‘지혜 주머니’ 처럼 LG전자만의 플레이백을 갖고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법을 준비해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짜놓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과 경쟁환경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8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LVCC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LG전자

을 경영활동의 상수(常數)로 두고 실행 전략을 정교화하는 데 주력하며 사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LG전자는 웹(web)OS 광고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매출을 2030년까지 현재의 5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전사 영업이익의 20%를 담당하는 핵심 사업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독사업 매출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다. 최근 LG전자의 구독 사업은 계속해서 고속 성장 중이다. 지난해 구독 사업 매출액은 직전년도 대비 75% 이상 성장해 2조 원을 육박했다. 당초 목표였던 1조80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아울러 B2B 매출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4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27% 수준이던 B2B 매

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5%까지 올라갔다. LG전자는 B2B 사업 가속화 차원으로 전장 사업에 이어 AI 시대 고속 성장이 전망되는 냉난방공조(HVAC) 사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조 사장은 아울러 인도 시장에서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인도에서 LG전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을 비롯해 TV 시장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인도의 국민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했다.

올 상반기 예정된 LG전자 인도법인 IPO(기업공개)와 관련해서는 “인도법인의 IPO는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하는 것이고 자금 유입은 부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에어컨 보급률이 10%가 안 돼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인구 70~80%가 냉장고·세탁기 없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공장을 지어 현지 완결형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중국 기업의 공세에 대해 사업 잠재력 극대화과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확대, B2B 사업 가속화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사장은 중국 가전 업체들의 성장과 관련해 “그동안 위협에 대한 인식 단계

였다면, 이제부터는 대응을 위한 실행 단계로 옮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LG전자는 이날 중국 가전과의 경쟁 방향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중국 위협이 거센 초대형 TV 사업과 관련해 박형세 LG전자 MS사업본부장 사장은 “중국 업체들의 TV가 110형, 116형으로 커졌는데 제품을 보고 많이 놀랐다”며 “(LG전자도 어떻게) 쫓아갈 것인지 스테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00형 이상으로 만들 경우, TV를 실내로 가져올 때 문을 뜯지 않고 수용 가능한 가옥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가구나 될 지 고민하고 있다”며 LG전자도 올해 100형 제품을 출시하는데, 고객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로봇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주완 사장은 “로봇은 확실한 미래”라며 “가사 노동해방을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물류, 배송, 서빙용 로봇에 더해 ‘로봇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휴머노이드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초기 버전인 인공지능(AI) 에이전트 ‘Q9’을 2~3월 ‘베타 테스트’를 거쳐 연말에 출시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주목받는 양자컴퓨팅… 글로벌 빅테크 경쟁 가열

구글·IBM 등 빅테크 도전장  
AI와 양자 기술 융합 가능성 탐색  
젠슨 황 “상용화 15~30년 후 전망”

올해 CES에 처음으로 양자컴퓨팅 부문이 신설되며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양자기술은 산업을 재편하고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의 힘”이라며 이번 CES 2025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일(이하 현지시간) CES 2025가 개막한 가운데 양자컴퓨팅 부문이 신설되고 9일에는 반나절 가량 양자컴퓨팅의 실질적 응용에 초점을 둔 콘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 행사인 ‘퀀텀 월드 콩그레스’와 협력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제는 ‘양자, 비즈니스를 뜻하다(Quantum Means Business)’다. 이론적 수준에 머무르던 양자기술의 구체적 활용 비즈니스 응용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구글, IBM을 비롯해 이온포획식 양자컴퓨터 개발 기업 이온큐(IonQ) 등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물리학회, UN 세계 양자과학 기술의 해(IYQ) 집행 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디지털 컴퓨터가 사용하는 비트(bit) 대신 양자 비트(qubit)를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컴퓨터다. 양자역학 원리를 기

반으로 작동하며, 기존 컴퓨터보다 복잡한 문제를 훨씬 빠르게 해결할 잠재력을 지닌다.

다만,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는 양자 역학의 주요 특성인 중첩(superposition), 얽힘(entanglement), 양자 게이트(quantum gate)로, 아직 현존 기술로는 구현이 어렵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글로벌 기자회견에서 양자컴퓨터를 언급했다. 다만 황은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데 15년이 걸린다고 하면 아마도 이른 편에 속할 것이고, 30년이면 늦은 편일 것”이라며 상용화 시점을 멀게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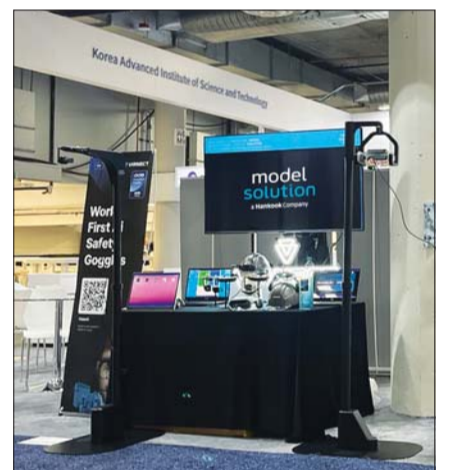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당분간 수익성이 낮은 양자 컴퓨터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구글은 지난날 9일 양자칩 ‘윌로우(Willow)’를 개발했다고 소식을 전해 양자컴퓨터 상용화 기대를 키우고 있다. 구글에 따르면 10셉틸리온(septillion·10<sup>24</sup>)년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 10셉틸리온년은 우주나이 138억년의 약 72조배다.

퀀텀 AI 설립자인 하트무트 네벤(Hartmut Neven)은 “윌로우 칩은 양자컴퓨팅에서 오류 수정과 성능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다”며 “대규모 양자 컴퓨터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CES 2025에 참여한 한국엔컴퍼니그룹의 모델솔루션버넥트 공동 운영 부스 전경.

### 모델솔루션 AI AR 디바이스 선포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증강현실 디바이스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9일 계열사 모델솔루션이 ‘CES 2025’에 참가해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모델솔루션은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기술 전문기업 버넥트와 공동 개발한 AI 스마트 고글과 자체 개발한 산업용 증강현실(AR) 디바이스 ‘MS-AR20SE’를 전시했다. 두 제품 모두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스마트 고글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도록 설계됐다. 클린룸 환경에서 제조해야 하는 반도체 및 의료기기 생산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MS-AR20SE는 원격지원, IoT 정보 가시화, 디지털 작업지시 등의 기능이 있고, 액세서리 장착을 통해 활용도를 확장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 TV로 즐기는 ‘아트 스토어’ 세계 명화

3000여 점 작품 4K 화질로 경험

삼성전자가 ‘CES 2025’에서 아트 구독 서비스 ‘삼성아트 스토어’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전시장에 ‘흠 포 아츠’ 존을 마련해 마이크로 LED, 네오 QLED D8K, 네오 QLED, 더 프레임 등을 전시했다.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맺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아트바젤의 작품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삼성아트 스토어는 올해부터 더 프레임을 넘어 네오 QLED, QLED 모델

로 확장 적용된다. 삼성아트 스토어 구독자들은 삼성 TV를 통해 사진, 일러스트 작품부터 유명 미술관·갤러리가 소장한 작품 약 3000점을 4K 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 삼성아트 스토어는 정기업데이트를 통해 매일 다채로운 큐레이션 작품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을 예술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더 프레임의 ‘아트 스트림’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가 직접 큐레이팅한 작품을 매일 30점씩 무료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열린 ‘삼성 퍼스트 룩 2025’에서도 아트 TV 리



CES 2025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보여주는 집’의 아트 경험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더십을 공고히 했다.

초청 연사로 나선 헤일리 로머 아트 바젤 CGO(최고성장책임자)는 “아트 스토어를 통해 예술이 물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전 세계 다양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며 “새로운 디지털 전시의 장으로서 대중의 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Gallery **오름**  
2025신년기획

태양의힘  
다시한번  
대한민국



태 양 의 작 가

신동권  
초  
대  
전

1.1(수) ▶ 1.13(월) 갤러리아람

An Invitational Exhibition by SHIN DONG KWON

*dongkwon*



# LG CNS “IPO 통해 DX 역량강화·글로벌 시장 선도할 것”

(디지털 전환)

‘1兆’ 대어급 IPO, 3년 만에 나와  
내달 상장… 15일까지 수요예측  
6000억 투자재원으로 사업 다변화  
“경기 영향 크게 받지 않으며 성장”

“LG CNS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올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LG CNS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발판으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DX)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해, 글로벌 DX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겠습니다.”

현신균 LG CNS 최고경영자(CEO)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후 회사의 중장기 성장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이번 LG CNS의 코스피 상장이 짐चे된 공모주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 CNS의 도전은 L



LG CNS CEO 현신균 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LG CNS

G에너지솔루션 이후 3년 만에 공모 규모 1조원 이상인 ‘대어(大魚)’급 IPO이기도 하다.

LG CNS는 LG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로, 지난해 1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다음달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다. 기관 수요예측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이고, 일반 청약은 21~22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KB증권,뱅크오브아메리카(BoA),모건스탠리 3개다.

LG CNS가 공모하는 주식 수는 1937만7190주이며 희망 공모가액은 1주당 5만3700~6만1900원이다. 계획대

로 상장이 진행되면 LG CNS의 시가총액은 5조2000억~6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번 IPO에서 LG CNS는 주당 평가가액 8만9378원에 3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했다.

LG CNS는 전체매출(2023년 5조6053억원)의 59.8%가량이 LG그룹 내 거래로 이뤄져 왔다. 현재는 생성AI, 클라우드 관리형 서비스(MSP), 물류자동화, 금융DX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중 AI·클라우드 분야는 2021~2023년 연평균 24.2% 성장해, 회사 전체 매출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 현 사장은 “향후 주가가 PER의 22~25배까지 높아지고, 단기순이익 기준 매년 10%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진헌 LG CNS 전략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DX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가 좋을 때에는 IT 수요가 늘어나고, 불황일 때에는 DX가 비용 절감을 위한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LG

CNS의 사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번 IPO로 6000억원가량의 투자재원을 모아 인공지능(AI)·클라우드·스마트팩토리 등에 투자해, 사업을 다변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끝으로 IPO 기자간담회 전날까지도 싱가포르 투자자들과 만남 가졌다는 현 사장은 “(최근) 안 좋은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우려한 것보다 한국의 상황에 대한 질문보다 LG CNS의 본질에 대해 묻는 투자자가 많았다”며 “LG CNS의 상장 성공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혹, 수요예측이 잘 안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상장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분위기 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밸류업, 체감효과 미미… 정책지원 필요”

공시 기업 63%, 시총 1兆 ‘대형사’  
거대 “중소 컨설팅·세제지원 노력”  
주주환원 기업에 인센티브 등 제공해야

지난해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코스피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다만 대형사와 일부 금융주에 편중된 참여 구조와 형식적인 공시로 인해 실질적인 밸류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코스피는 85개사, 코스닥은 17개사가 밸류업 공시(분공시·예비공시 합계)를 해 코스피 대비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밸류업 공시기업(102사) 중 시총 1조원 이상 기업 비중이 63%(64개사)에 달할 정도로 대형사 중심으로 밸류업 공시에 나섰다.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41%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밸류업 공시에 나선 데 반해 코스닥에서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의 시총 비중은 2%에 그쳤다.

지난해 밸류업 분공시 기업의 연초 대비 평균 수익률은 3.2%를 기록했다.

특히 코스피 분공시 기업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4.9% 상승, 코스피 지수 수익률(-9.6%)을 크게 웃돌았다.

코스닥 분공시기업의 경우 주가수익률이 -9.4%로 코스닥지수 수익률(-2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주주환원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6000억원 증가,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사주 소각도 1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났다.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금액 역시 4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2년 차를 맞아 상장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 상장기업 대상 공시 컨설팅 강화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102개사는 전체 상장사(2750개사)의 3.71%에 불과하고 자사주 매입 역시 삼성전자, 고려아연 등 소수 대형 기업

에 집중된 데다 매입된 자사주가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가 상승효과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는 나름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했다”라면서 “고려아연, 두산밥캣, 이수페타시스 등과 같은 일부 사례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당과 관련된 분리 과세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들이 이들에게 부여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올해 속도감 있게 추진돼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한투운용, 지난해 ETF 수익률·점유율 ‘쑥’

지난해 21개 신규상품으로 ‘성장세’

상장지수펀드(ETF)상품에 대한 투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상장 ETF 중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용)의 ETF 수익률과 점유율 상승세가 국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 중 지난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 ETF’로 집계됐다. 해당 ETF는 최근 6개월간 42.91%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24년 1년간 197.07%에 달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 ETF 외에도 ▲ACE 미국주식 베스트셀러 ETF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가 각각 84.02%, 82.06%로 2024년 연간 수익률 10위권 내 안착했다.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에 3개 이상의 상품을 올린 것은 한투운용이 유일했다.

아울러 ETF 시장에서 ACE ETF의 점유율 상승세도 국내에서 ETF 사업을 영위 중인 26개 운용사 중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ACE ETF의 시장 내 점유율은 지난 2023년 말 4.92%에서 2024



년 말 7.56%로 2.64%포인트 증가했다. 순자산액 또한 2023년 말 5조7014억원에서 2024년 말 13조1256억원으로 130.22% 증가했다.

한투운용 측은 “ACE ETF의 성장세는 적극적인 신규 상품 출시 덕분으로 풀이된다”며 “한투운용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21개의 신규 상품을 선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투운용이 ETF 상품으로 처음 출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연간 상장 건수다. 21개 상품 중에는 국내 최초 데일리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 3종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 상품이 보인 우수한 성과에 신규 상품 공급이 더해지며 개인투자자 순매수 또한 지속 유입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ETF로 지난 한 해 동안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2조7645억원으로, 이는 2024년 국내 상장 ETF 전체 개인순매수액 중 14%에 달한다.

/허정윤 기자

## 신한 마음편한TDF 시리즈, 수탁고 1兆 돌파

신한자산운용 “우수한 성과 요인”  
3년 성과서 수익률 1위 유지

신한자산운용의 ‘신한 마음편한TDF’가 2017년 이후 8년간 검증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차별화된 성과로 수탁고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자사의 신한 마음편한·장기성장 TDF 시리즈가 수탁고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출시 이후 8년 동안 안정적인 운

용능력을 입증한 업계의 대표적인 스타 디젤러 TDF로 자리잡고 있다.

신한자산운용 TDF시리즈는 지난해 1800억원이상의 순증을 보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 유입의 가장 큰 요인으로 우수한 성과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장기운용능력을 아우르는 성과지표인 3년 성과에서 1위를 유지 중이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연금투자자의 핵심인 30대, 40대가 주로 가입

하는 신한 마음편한TDF (2045, 2050) 3년 수익률이 각각 15.63%, 16.73%로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지난 1월3일 기준, 1000억원이상 동일 유형펀드 기준)

신한자산운용 TDF의 우수한 성과 요인으로는 오픈유니버스로 자사 상품 위주가 아닌 전 세계 우수한 다양한 상품에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는 전략과 적극적인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한 단기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해외주식에 대해 환오픈 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환헤지 비중을 조정하는 유연한 환율전략을 꼽는다.

/허정윤 기자

## 한투증권, 해외 대학생 대상 채용설명회

‘KIS 챗 인 서울’ 진행

한국투자증권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해외 대학교 재학생 대상 채용설명회 ‘KIS 챗 인 서울(KIS Chat in Seoul)’을 진행했다.

9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채용설명회는 방향을 맞이해 귀국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증권업 및 한국투자자금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8

일 마련됐다. 해외 현지 한인 학생회를 통해 소식을 접한 해외대 재학생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사업, IB(기업금융),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운용, 리서치, PB, 디지털 등 직무별 역할과 업무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직무 설명회가 진행됐다. 직무별 현직자를 직접 만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상담부스도 운영했다.

/허정윤 기자



# ‘이용자 불신’ 확률형 아이템 손보나... 게임업계 ‘예의주시’

아이템 종류·공급확률 등 공개  
이용자 신뢰도는 30%대 그쳐

정부, 제도 후속입법 속도낼 듯  
게임사 “규제강화 ‘역효과’ 우려  
시장상황 맞는 유연한 대처 바라”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3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게임 관련 부처가 확률형아이템 관련 규제 보완에 나섰다. 게임업계는 주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만큼 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9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자)가 지난해 시행한 청소년 및 일반인 게임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의 시행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청소년 64.7%, 일반인 60.6%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나, 공개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청소년 34.8%, 일반인 32.2%)이 신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4’가 개막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하지 않는다는 응답(청소년 24.1%, 일반인 26.4%)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업계에는 지난해 3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용자들에게 결제를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정한다는 점과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등 아이템 확률 고지 관련 오류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게임사들은 게임물과 관련 광고 및 선전물에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관련 부처도 유저들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제도를 보완하고 나섰다. 후속 입법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부처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하면서 게임사들은 직접 고의, 과실에 대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됐다. 여기에 이용자들의 소송 특례를 마련해 권리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구제 전담 센터도 도입했다. 해당 법률 공포는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게임사들의 주 수익원인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국회가 더욱 강화할 경우 이용자와 기업측 모두 예민하게 현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관련 입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다”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관련 부처는 법안들을 디테일하게 보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감도가 높고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은 대내외 시스템 점검에 나섰지만 불안도는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진출, 해외 게임사 경쟁, 경제 위축 이슈

가 있는 가운데 규제까지 강화되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입법을 통해 확률형아이템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보다 게임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에선 사후 조치 등으로 문제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확률형아이템 논란이 게임사들과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슈인 만큼 관련 규제 시행은 수순을 밟은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회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게임에 대한 규제만 고수한다기보다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게 시장 상황에 맞는 법안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아무래도 규제가 핵심인 만큼 부담감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며 “업계가 힘든 상황이라 규제 관련 이슈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

중기부, 설 명절 맞아 ‘빅4 이벤트’  
결제액 기준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명절 소비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카드·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빅(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린다.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된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주점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시 자동응모하며 2월 중 주점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품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선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에이스침대, 예비부부 위한 ‘웨딩멤버스’

신라인터넷면세점 등 제휴사 혜택

에이스침대가 다양한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혜택을 강화한 2025년 ‘에이스 웨딩멤버스’를 실시한다.

9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 웨딩멤버스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혼수 장만을 돕기 위해 2014년 론칭한 맞춤형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에이스침대는 면세, 침구, 이사, 주방, 가구, 반려동물용품 등 다양한 분야로 제휴 범위를 확대해 혼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선보인다.

먼저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기존 제휴사인 신라인터넷면세점, 웰크론몰, 영구크린 외에도 다양한 신규 제휴사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락앤락과 쿠팡에서는 각각 최대 33%와 20%의 할인 혜택을, 자코모에서는 정가 기준 7%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제품구매 시 침대, 룸세트, 슬립케어 구매금액을 합산해 350만 원 이상일 경우 신혼여행에서 활용하기 좋은 내셔널지오그래픽캐리어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구매 금액대에 따라 캐리어 크기 및 세트 구성이 업그레이드되며, 특히 10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대용량 28인치 캐리어와 실용적인 20인치 캐리어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매트리스 연계 품목 20% 할인 쿠폰도 준비했다. 쿠폰을 사용하면 향균 매트리스 시트인 ‘마이크로케어’, 매트리스 보호커버 ‘스마트 슬리브’ 등 다양한 슬립케어 제품 할인을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 시몬스 “다가오는 설 ‘숙면’ 선물하세요”

숙면 베개 3종 준비

시몬스가 다가오는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숙면 베개 3종을 준비했다.

9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소비자의 수면 습관과 자세 등을 고려한 다양한 베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뷰티레스트 비스코 스프링 언더 필로우’다. 수면 중 목이 불편하다는 부모님을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선물하기에 좋다. 이 베개는 소프트 타입 고밀도 메모리폼의 부드러운 안정감과 포켓스프링의 섬세한 지지력을 동시에 갖췄다. 개별지지력을 갖춘 포켓스프링은 수면 중 미세한 움직임에도 즉각 반응해 건강한 수면 자세를 돕는다.

‘뷰티레스트 하이퍼 포켓스프링 필로우’ 역시 설 선물 아이템으로 빼놓을 수 없다. 이 베개는 포켓스프링 기술력과 화



이버 패딩이 어우러진 기능성 베개로, 오랜 시간 누워도 안락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블랙포레스트 구스 필로우’는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중 한 곳인 독일 남서부 ‘블랙포레스트’ 지역의 청정수를 사용해 엄격한 우모 세척 및 제조 과정을 거친 제품이다. 최고 품질의 1등급 폴란드산 프리미엄 구스 다운과 구스 페더로 구성돼 뛰어난 복원력과 지지력을 자랑한다. /김승호 기자

## LX하우시스 지인 벽지 베스피 리뉴얼

LX하우시스가 새해맞이 인테리어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대표 인기 벽지 ‘LX Z:IN(지인) 벽지 베스피’의 2025년형 리뉴얼 신제품을 선보였다.

9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베스피’는 지난 2000년 출시한 이후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LX하우시스의 스테디셀러 벽지 제품이다. 2025년형 베스피 벽지는 깊이감과 입체감을 한층 높이는 인쇄공법을 새롭게 적용, 석재·흙 등 자연 소재의 느낌을 보다 사실적으로 구현한 표면 질감 패턴을 대거 추가한 총 146개의 디자인으로 출시했다.

특히 ‘딥 엠보’ 공법을 적용해 기존보다 제품 두께가 약 40%(0.15mm) 두꺼워져 표면 질감의 깊이감이 높고, ‘무광 와이핑 패턴 인쇄’를 통해 음영이 더욱 짙어지는 효과로 입체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여성기업 사업에 104.9억 투입

여성창업 등 3개 분야 10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여성기업 전용 사업에 104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여성창업, 여성기업 판로, 여성기업 인력 등 3개 분야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중기부는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2025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예비)창업자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성창업경진대회 신청자격은 기

존 창업 3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업화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희망 기업 대상 수출 희망 국가의 실무교육 및 홍보를 돕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원활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여성기업들의 흡소핑,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활용품 전시회 참가 시 부스비 등도 제공한다.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하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의 무구매 제도도 지속 실시한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플랫폼으로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 인력난 해소에도 힘을 보탠다. /김승호 기자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80조 돌파 국세수입 감소, 재정 안정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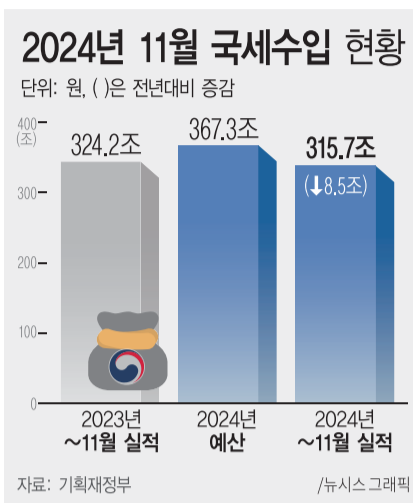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법인세 감소 직격탄, 세수 부족 심화 재정수지 악화, 전년비 적자 16조 ↑ 국고채 발행량 연간 한도 99.5% 달성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11월까지 누적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적자 폭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4000억 원이나 늘었다. 세(稅)수입 중 법인세가 전년 대비 17조 원 넘게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54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였다.

항목별로, 세외수입은 26조1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20조 원 늘어난 200조 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수입의 경우 국민연금 해외 주식투자 수익이 전년 대비 늘었다"며 "11월에 수입이 3조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수입은 8조5000억 원 줄어



든 315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가 1조4000억 원, 부가세가 7조3000억 원 늘었지만 2023년 저조했던 기업 실적이 지난해 반영되면서 법인세가 17조8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570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지출이 10조8000억 원 늘어난 386조4000억 원, 기금지출은 11조2000억 원 증가한 18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용처별로 보면 국민연금급여지급이 4조1000억 원, 국고채이자상환은 3조 원, 퇴직급여는 1조8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성기금수지(53조1000원 흑자)를 빼 실질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동기보다 16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11월 누계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98조3000억 원), 2022년(98조 원) 이후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작년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4조1000억 원, 전년동월 대비 +67조원으로 115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전망(1163조 원)에 근접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국고채권 대규모 상환이 있어 (채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채무는) 전망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9.5%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 원)를 포함하면 연간 총 발행 한도는 100%로 올라간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제3국 민간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한미 '원자력 수출·협력 원칙' MOU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양국은 이 MOU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제3국으로의 민간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이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다고 9일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MOU는 양국이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한 최종 확정을 담았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 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다.

체결 직후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한다"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파키스탄 '2.5억' 시장 관세 장벽 허문다

산업부,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한국과 파키스탄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정인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에서 잠 카말 칸 파키스탄 상무장관과 한-파키스탄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 상대국과의 공동변역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 협정이다.

인구 세계 5위의 파키스탄은 풍부한 노동력(인구 2억5000만, 청년비중 30%)과 천연자원(석탄·천연가스·구리)을 보유한 남아시아 대표 잠재시장이다. 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경제

권과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한-파키스탄 EP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는 우리 측의 수출잠재시장 확보, 파키스탄 측의 안정적 경제성장 기여 등 양측 모두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정보기술(IT),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해당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급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FT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올해도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통상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

### KS 166종 국제표준 일치화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66종을 국제표준과 일치화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정부가 국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6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및 국내 원천기술의 고유표준 제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국가표준(KS)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준을 일컫는다. 국제표준(ISO)은 국가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뜻한다.

지난해 국제표준에 부합한 국가표준 166종에는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소재의 추적성 관리 방법 ▲제품시스템에서 제품 내 함유 우려 화학물질 관리 ▲수질 중 냄새물질 시험분석 방법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방법 등 다양한 환경분야의 국가표준이 포함된다.

물환경 분야 54종과 토양 분야 18종, 대기환경 분야 8종, 대기배출원 분야 7종, 실내공기질 분야 14종, 지하수 분야 4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5종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뉴시스

## 철강산업 경쟁력, 민관 공동 논의

산업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공급과잉·탄소중립 대응 등 논의 탈탄소 전환 위한 핵심 과제 도출

국내 철강업계의 국내외 현안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업계·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 철강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중국발 국제 공급과잉, 탈탄소 전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민동준 연세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학연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단기적으로 통상 현안에 민관이 협업에 대응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

TF는 산하에 ▲경쟁력 강화 ▲저탄소 철강 ▲통상 현안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했다. 출범식에서 각 분과는 철강산업 발전방안, 저탄소 철강이행을 위한 핵심과제, 철강 통상환경 변화와 과

제 등을 논의했다.

이러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전환 요구로 철강산업이 새 도전과제를 떠안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친환경·고부가 철강산업으로의 전환 노력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전향적인 투자 노력을 요청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동준 교수는 "철강산업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새로운 콘드라티에프 파동을 넘기 위해 과거 연관산업과 함께 성장해왔듯이 미래 연관산업과 손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025년은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맞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TF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실효성 있는 철강산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KREI, 농정·농업 혁신 미래 논의

'농업전망 2025' 대회 16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오는 1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한국 농업·농촌, 변화를 준비한다'를 주제로 '농업전망 2025' 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한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인, 산업계, 학계, 중앙과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농업전망 2025 대회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2025년 농정 이슈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 등을 주제로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를 주제로 연세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이 'AI시대 문명사대 전환: 농업혁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기

조강연을 한다. 이어서 김용렬 KREI 농업관측센터장이 '2025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김상호 KREI 동향분석실장이 '2025년 농정이슈'를 발표한다.

2부는 '2025년 농정이슈'를 주제로 ▲시장대응강화 ▲농업구조전환 ▲농촌과 삶의 3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3부는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에 대해 ▲국내곡물 ▲국제곡물 ▲축산 ▲과일과채 ▲채소의 5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두봉 KREI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다"며 "농업전망 2025가 농업·농촌의 밝은 내일을 위한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인터파크 바로가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운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 강주호 “일회적·일시적 악성민원

〈교총 신임회장〉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 대응”

취임 1호 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민의힘 의원에 발의·입법 요청  
국회 교육위에 개정 요구 전달 예정  
현재 반복성 이유로 면죄부 받기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교총이 9일 밝혔다.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교원들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 생활이 무너지는 데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일회적·일시적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시해 구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오른쪽)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왼쪽)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교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도 곧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법 제 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

으로 ‘목적적·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일례로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은 서울 학부모가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에 연구목적이란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무차별적으로 한 일 있다”라며 “이 경우 학교는 반복성이 없으므로 교육활동 침해를 제기하기 어렵고, 인정 받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원들은 갈수록 해고지성, 무고성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학교 마비, 교실 붕괴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다시 악성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대학 ‘이중등록’ 금지… 충원 합격 시 주의

대교협 등록 기준 ‘등록금 납부 여부’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취소 인정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박시현 학생은 정시전형에 지원한 A대학에 합격해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얼마뒤 가장 원했던 B대학으로부터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고, 시간이 촉박해 바로 등록했다. 두 대학에 등록한 셈이다. 이래도 될까?

9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동일 학기에 두 개 이상의 대학에 동시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된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금지돼 있다.

간혹 수험생들이 단순히 등록 취소 의사만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판단하는 등록 기준은 ‘등록금 납부 여부’이다. 이미 등록한 대학에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대교협은 이중 등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수험생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중등록은 다른 수험생들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중 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의 경우 이중 등록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을 경우 빠르게 등록 포기해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중 등록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입학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간절한 기회를 보장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건강관리교실’ 개발

SKT 등 AI 전문기업과 협력  
3월부터 운영 내실화 사례 연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건강체력교실 운영 내실화 및 미래 지향적인 건강관리 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SK텔레콤 등 인공지능(AI) 전문기업과 협력 개발한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 운영 모델을 10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은 신체건강·영양·정서건강 등을 종합해 ‘인공지능이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다.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건강체력교실’의 내실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은 ▲신체 정보 및 체력 측정 ▲신체적 건강관리 ▲정서적 건강관리 ▲사회적 건강관리 ▲영양 관리 등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 각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 각 학교가 예산과 공간 등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고 내실화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디지털 기반의 안전한

실내 체육활동 공간을 구축하고, 학생 자기주도적 건강체력 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283개 초·중·고교에 학교당 평균 5000만원, 총 145억원을 지원해 ‘디지털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을 구축한 바 있다. 올해도 총 31개교에 디지털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총 11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축이 완료된 학교나 신규 구축 예정 학교 중 1곳을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 운영 모델 적용 시범 학교로 지정해 3월부터 건강체력교실 운영 내실화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평택시, 기초 시군 중 출생아 증가율 1위

(인구 50만 이상)

4110명 집계… 전년비 10.8% 늘어

평택시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 시군 중 출생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에 따르면 평택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3년보다 10.8% 증가한 411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구 50만 이상 기초 시군 중에서는 평택시에 이어 ▲경기 수원시(9.0%) ▲경기 화성시(7.4%) ▲경기 안양시(6.7%) ▲경기 파주시(5.1%) ▲경기 용인시(4.8%) ▲경기 성남시(4.5%) ▲경기 남양주시(3.2%) ▲경기 시흥시(2.7%) ▲경기 고양시(2.7%) ▲경남 창원시(0.8%) ▲충북 청주시(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는 3.1%의 출생아 증가율을 기록했다.

높은 출생아 증가율과 관련해 평택시는 취업자 수, 젊은 층의 유입, 주택 보급, 높은 혼인율 등이 작용한 결과로 설명했다.

실제 평택시의 취업자 수는 2013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평균연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45.3세)과 경기도(43.6세)보다 낮은 41.9세를 기록했다. 특히 평택 고덕동의 경우 평균연령이 33.1세로, 수도권 읍면동 중 가장 젊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6년 동안(2018~2023년) 주택 수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으며, 2019년 평택시가 대도시로 진입한 이후에는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초혼인율을 매년 기록하고 있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규제 철폐안 3·4호 발표

서울시는 규제 철폐 3·4호로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규제 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 영향 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하는데 이어 나흘 만에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 규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 철폐 3호와 관련해 시는 고도·



오세훈 서울시장 9일 열린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도시 규제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 규제

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설정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규제 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울진군파크골프장, 공인경기장 인증 획득

시설·운영적 우수성 인정받아

울진군은 울진파크골프장(36홀)이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경기장으로 지난 연말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협회와 함께 공인인증 검증 조건에 맞추어 시설물 보완공사 등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공인 경기장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써 (사)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 개최 자격요건에 충족하게 됐다.

이번 공인인증은 울진파크골프장이 시설적, 운영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시설, 부대시설, 시설 용품의 공인 규격 부합 여부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며, 울진파크골프장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



울진군은 지난 12월 울진파크골프장(36홀)이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경기장으로 인증받았다.

는 시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파크골프는 최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으며,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종목이다. 울진파크골프장은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4만6000㎡의 넓은 부지에 36홀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청정 동해 바다와 양귀천의 자연경관 속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울진(울산)=손기섭 기자 gbnews8082@



# 뚜레쥬르 ‘할랄시장’ 정조준... 인니 이어 말레이시아 출격

**CJ푸드빌-스트림엠파이어홀딩스 말레이시아 진출 MF계약 체결 상반기 현지 1호점 매장 오픈예정 ‘프리미엄 베이커리’ 차별화 전략**

뚜레쥬르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 및 확장세를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 동남아 대표 할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뚜레쥬르는 전날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인 ‘스트림엠파이어홀딩스(Stream Empire Holdings)’와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상징적인 경제 대국이자 국가가 이슬람교인 대표적인 할랄 시장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의 전략적 요충지다. 말레이시아 베이커리 제품 시장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2023년 말레이시아 베이커리 제품 시장의 규모는



정수원 CJ푸드빌 인도네시아 법인장(오른쪽)과 저스틴 임(Justin Lim) 스트림엠파이어홀딩스(Stream Empire Holdings) 대표가 8일 말레이시아 섀웨이 리조트 호텔에서 뚜레쥬르의 말레이시아 진출을 위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푸드빌

138억2000만 링깃(약 4조4000억원) 수준이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5.1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뚜레쥬르는 말레이시아까지 진출 국가를 확장하며 해외 총 9개국에서 K-베이커리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알리게 됐다. 뚜레쥬르는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 체결 후 올 상반기 내 말

레이시아에서 1호점을 오픈하고 향후 주요 입지로 출점을 확산할 계획이다.

뚜레쥬르의 MF 파트너사인 ‘스트림엠파이어홀딩스’는 다양한 리테일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기반 회사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F&B, 편의점 및 패션 리테일 등 약 200개 이상의 다양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트림엠파이어홀

딩스’가 현지 시장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인만큼 말레이시아에서 뚜레쥬르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시장은 뚜레쥬르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인접해 사업 운영과 물류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뚜레쥬르는 2019년에 인도네시아 브카시 지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국내 베이커리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인도네시아 공장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 매출은 전년 비 20%, 영업이익은 27% 상승했으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뚜레쥬르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확고한 사업 기반과 말레이시아 현지 MF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올 상반기 내 1호점 오픈을 추진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입증된 ‘프리미

엄 라이프 스타일 베이커리’ 제품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식사빵부터 간식빵, 케이크 및 음료 등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에서도 뚜레쥬르의 건강하고 신선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여 동남아시아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기반과 말레이시아 현지 파트너사의 인프라 등을 활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뚜레쥬르는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과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의 아시아 각국에도 진출하며 현재 약 560여 개 글로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11년 진출 이후 현재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7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시장 내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의 선두 주자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金빛 새해 맞아요”... 유통가 ‘골드바’ 이벤트 풍성

**갤러리아 ‘신년 골드 이벤트’ 진행 2025만원 구매고객에 골드바 3돈 일동후디스 ‘골드바를 잡아라’ 행사 이마트24 총 10명에 골드바 5돈 제공**

금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골드바를 활용한 고급 경품 전략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금값 상승에 따라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해 소비자층의 관심을 끌려는 마케팅 전략으로 해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가가 새해를 맞이해 골드바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금값 상승으로 골드바 시세가 급등하고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라 전자자산으로 여겨진 금값이 14년 만에

연간 27%나 급등한 바 있다.

갤러리아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년 골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를 맞아 특별 제작한 골드바 사은 행사와 경품 이벤트, VIP 대상 금 투자 컨설팅 등 금 관련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갤러리아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갤러리아 전 점포에서 202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시그니처 골드바’ 3개(3돈)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 외에도 골드바 팝업 행사를 진행, ‘도어락 이벤트’를 통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춘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시그니처 골드바’ 1돈을 증정한다.

금투자 컨설팅도 진행한다. 서울 명품관과 대전 타임월드에서는 VIP 고객을 대상으로 금 투자 1:1 컨설팅과 금순도 측정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금 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5년 황금 같은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유아·성인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선보이는 일동후디스 역시 2025년 청사해를 맞이해 ‘골드바를 잡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골드바 이벤트는 경품 형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을 통해 ‘하이문 액티브 음료’를 1박스 이상 구매한 고객 중 3명에게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돈을 제공한다.

편의점과 홈쇼핑 업체도 골드바를 활용한 연초 이벤트를 전개한다.

이마트24는 이달 동안 ‘황금 선물 대잔치’ 프로모션을 통해 순금 골드바 5돈을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새해 첫날부터 대규모 경품 행사를 통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는 동시에, 가맹점 매출을 활성화하려는 전

략이라는 게 이마트24 측 설명이다.

NS홈쇼핑 역시 지난 4일까지 ‘푸른 뱀 골드바 18.75g’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실시했다. 알림 수신 동의를 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고객 중 한 명에게 추첨을 통해 골드바를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향후 금값에 대한 대외적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올해 금값이 31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미 정부 부채 급증, 지정학적 긴장 악화에 대한 불안이 금 매수세를 촉진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2910달러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마트가 9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이마트 ‘가격파격 선언’ 행사 식료품·생필품 할인

이마트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핵심 그로서리 5대 품목과 생필품 50대 품목을 포함한 1월 가격파격 행사 ‘가격파격 선언’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가격파격 선언’은 이마트가 지난해 매달 진행해 온 행사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3대 식료품과 40대 생필품을 월별로 선정해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 혁신 전략의 일환이다.

이마트는 새해 대표 식료품을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생필품을 기존 40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고 약 20일간 대파, 양념 소불고기, 곱창돌김, 만두, 완자 등 5가지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나선다.

먼저, ‘파머스픽 흙대파’는 1봉당 2480원으로 기존 정가가 대비 약 17%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이마트 채소 바이어가 지난해 11월부터 겨울 대파 주산지인 영광, 임자도, 신안 지역 농가와 사전 계약재배를 진행하고 이마트 후레쉬센터를 통해 포장 작업을 진행해 비용 절감이 가능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 롯데칠성음료, 온라인몰 ‘칠성물’ 새단장

선물하기·브랜드관 등 기능 추가

롯데칠성음료가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을 선보이며 공식 온라인몰 ‘칠성물’을 새 단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온라인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브랜드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칠성물을 리뉴얼했다고 9일 밝혔다.

칠성물은 Chil for you(칠 포 유), 선물하기, 신상품 체험, 브랜드관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소비자 참여

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칠 포 유’는 소비자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최근 관심 상품, 좋아할 만한 신상품 등 개인별 맞춤형 제품을 추천한다. 선물하기는 카카오톡으로 음료를 선물하고 상황에 적합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신상품 체험은 새롭게 출시되는 음료를 칠성물에서 가장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랜드관은 음료 및 주류 주요 브랜드 소개, 역사, 광고 영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권성준 셰프의 ‘나폴리 맛피아’ 티저 공개

롯데리아, 16일 협업메뉴 출시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오는 10일과 14일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가 소개하는 25년 첫 신 메뉴 티저 영상을 공개한다.

권성준 셰프는 지난해 주목받은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최종 우승자로 이탈리아 현지 특색을 담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정통 이탈리아 셰프다. 롯데리아는 공식 유튜브 채널 ‘버거

가게’를 통해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와 함께한 티저 영상을 각각 공개하며, 16일 협업 메뉴 정식 출시와 함께 본편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한국 식재료를 활용해 버거를 요리로 재해석한 한정 메뉴 ‘불고기포텐버거’·‘통새우크런KIM버거’ 출시한 바 있다.

소비자 반응에 힘입어 올해 롯데리아의 독창적 메뉴 개발관과 권성준 셰프의 도전적 요리 스타일을 접목해 이번 협업 및 공동 메뉴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 /신원선 기자



# 제약·바이오업계, ADC 역량 강화

## 〈항체약물접합체〉

# 글로벌 'K-CDMO' 경쟁력 높인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 리가캡과 ADC 치료제 개발

#### 셀트리온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

#### 동아에스티 애플티스 자회사 인수

### 롯데바이오로직스

#### 美 등 CDMO 인프라 확충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다양한 항체·약물접합체(ADC)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K-바이오파이프라인(CDMO)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리가캡 바이오사이언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3건 이상의 항체·약물접합체(ADC)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세계적 수준의 CDMO 역량과 ADC 기술력을 상호 보완해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지난 2024년 2월부터 리가캡 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개발(CDO) 사업 계약을 통해 ADC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6월에는 ADC 개발을 위한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말 인천 송도에 완공한 ADC 의약품 전용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생산시설은 4층 구조로 설계됐고, 500L 접합 반응기 및 정제 1개 라인 등이 구축됐다. 또 이 시설은 기존 바이오캠퍼스 1, 2와 인접하게 위치해 신속하고 안전한 공급망 체계를

완성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활용해 ADC 기술을 보유한 유망 바이오 기업에 투자해 왔다. 스위스 아라리스 바이오, 국내 바이오기업 에임드바이오, 미국 브릭바이오 등과 함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쏟는다.

셀트리온그룹도 ADC 등에 중점을 둔 고부가가치 의약품 사업에 속도를 낸다. 특히 셀트리온은 오는 2028년까지 9개의 ADC 신약과 4개의 다중 항체 신약 등 총 1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자체 확보할 계획이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월드 ADC 2024'에서 ADC 신약 후보물질들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물질들은 비소세포암, 방광암 등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은 CDMO 전문기업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를 설립해 급변하는 의약품 사업 전반에서 적극 대응한다. 대량 생산부터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까지 아우르면서 ADC 치료제, 다중 항체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펩타이드 신약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그룹의 동아에스티는 ADC 전문 자회사 애플티스를 자회사로 인수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했다.

애플티스는 항체 변형 없이 위치 선택적으로 약물을 접합시킬 수 있는 ADC 링커 기술 '애플클릭'을 개발했고 애플클릭 스탠다드와 프로 플랫폼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애플티스는 올해 임상 진입을

목표로 위암 치료제 AT-211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 항체방사선물 질접합체(ARC), 항체표적단백질분해제접합체(APC), 항체면역자극항체 접합체(ISAC) 등에도 집중해 ADC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애플티스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애플티스가 자사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ADC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동아쏘시오그룹의 에스티젠바이오 등과의 향후 파트너십에도 기대감이 실린다. 에스티젠바이오의 핵심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과 CDMO 서비스다.

한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ADC 생산기지인 CDMO 및 ADC 사업에 초석을 닦았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CDMO 사업 시작 단계부터 미국 시리큐스에 위치한 BMS 공장을 바이오의약품 CDMO 시설로 전환했고 ADC 시설을 증설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 ADC 생산 및 유통 등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차별화한다. 아울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ADC 플랫폼 전문기업 피노바이오, 카나프테라퓨틱스 등과도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펼치고 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생산규모, 제조시설 등의 관점에서 보면, 'ADC'라는 차세대 의약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를 고객사로 수주하는 등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위탁개발생산 사업에 신약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지면서 K-CDMO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크래프톤, 엔비디아 AI 협업모델 'CPC' 발표

“인조이 등 다양한 게임에 확대 적용”

크래프톤이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 'CPC'를 선보였다.

크래프톤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폰텐블로 호텔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탄생한 혁신적인 AI 기술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강욱 크래프톤 디러닝본부장은 엔비디아와 개발한 AI 협업모델 'CPC'를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CPC는 엔비디아 에이스(ACE) 기술로 구축된 게임에 특화된 온디바이스 소형 언어 모델(On-device SLM for Gaming)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캐릭터"라며 "기존 논 플레이어 캐릭터(NPC)와 달리 이용자와 대화하고 협력하며 상황을 유연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강욱 크래프톤 디러닝본부장이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폰텐블로 호텔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탄생한 혁신적인 AI 기술을 발표했다. /크래프톤

설명했다.

이어 "크래프톤은 PUBG IP 프랜차이즈와 인조이(inZOI)를 포함한 다양한 게임에 CPC를 확대 적용해 이용자 경험 혁신을 이어가겠다"며 "AI 기술이 게임 산업에 가져올 큰 변화를 믿고 엔비디아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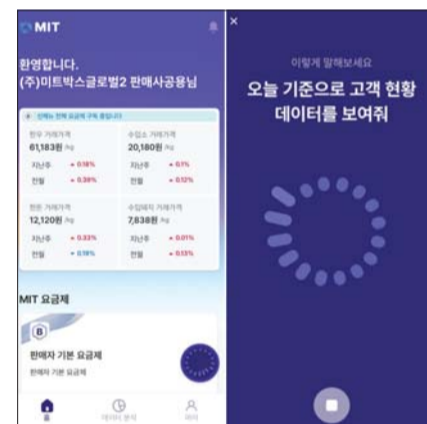
## 미트박스글로벌, 'MIT' 정식 출시

국내외 축산 현황 데이터 제공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미트박스글로벌이 국내외 축산 현황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시보드 플랫폼 M.I.T(미트박스 인사이트 테크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미트박스글로벌은 지난해 상반기, 10여 년간 축적한 내부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MIT 베타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새로운 기능 추가 및 고도화,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데이터 수집을 통한 국내외 생산, 수급, 기초 유통 및 소비 데이터를 확보하여 MIT 정식 서비스를 선보였다.

MIT 정식 서비스는 전반적인 기능 고도화를 거쳐 사용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트박스 인사이트 테크서비스' 이용 화면 /미트박스글로벌

베타 서비스 대비 주요 업그레이드 요소로는 플랫폼의 모바일화, AI보이스 도입, AI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예측 모델, 국내외 공공기관 데이터 확보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지엔티파마, '넬로넨다즈' 다국적 임상 3상

〈뇌졸중 치료제〉

### 식약처에 임상 3상 IND 제출

#### 곽병주 대표 "뚝뚝히가 박차"

신약 개발 벤처기업 지엔티파마가 개발한 뇌졸중 치료제 '넬로넨다즈'의 임상 3상이 시작된다.

지엔티파마는 넬로넨다즈의 약효 확증을 위한 임상 3상 시험계획서(IND)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엔티파마는 국내 뇌졸중 임상 2상과 3상에서 확인된 넬로넨다즈의 약효를 입증하는 다국적 임상 3상(RENEW) 프로토콜을 완료하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호주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넬로넨다즈 다국적 임상 3상은 발병 후 12시간 이내에 혈전제거술을 받는 중증 뇌졸중 환자 7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임상에서는 당뇨 병력이 있는 환자는 제외되며 응급실 도착 후 최초 약물 투약은 60분 이내, 혈전제거술 시행은 90분 이내로 권고한다. 전체 시험 대상자의 50%가 등록되



지엔티파마 뇌졸중 치료제 '넬로넨다즈'

는 시점에서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DMC)의 중간 분석이 실시된다. 중간 분석에서 약물 투약 후 12주째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장애가 개선된 넬로넨다즈 투약군의 비율이 위약 투약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약효 유효성이 검증된 것으로 선언, 연구는 조기 종료된다.

다국적 임상 3상 총괄 연구책임자는 아주대학교병원 신경과 과장 이진수 교수가 맡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뇌졸중센터장 라울 노구에라 교수, UCLA 대학병원 뇌졸중센터장 데이비

드리베스킨드 교수, 호주 모나시 대학 병원 뇌졸중센터장 헨리 마 교수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다.

넬로넨다즈는 세계 최초 다중표적 뇌세포 보호 약물로, 비교 약물들에 비해 뇌졸중에 의한 뇌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혈전제거술을 받은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과 3상을 통합 분석한 결과, 당뇨 병력이 없는 중증 환자의 경우 위약 투약군 대비 넬로넨다즈 투약군에서 12주 후 독립생활이 가능한 환자 비율이 확연히 증가했다. 또한 응급실 도착 후 60분 이내에 넬로넨다즈를 투약한 환자는 위약 투약군에 비해 12주 후 장애가 확연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엔티파마 곽병주 대표이사는 "다국적 임상 3상에서 의학적으로 유의적인 약효가 확인되면 최초의 글로벌 뇌졸중 신약으로 국가별 품목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신제품

### 유한양행

#### '엘레나 테아닌' 4종

유한양행이 프리미엄 여성 유산균 '엘레나 테아닌'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유한양행은 엘레나, 엘레나 퀴, 엘레나 스틱, 엘레나 테아닌 등 총 4종으로 여성 유산균 제품군을 확장하게 됐다.

유한양행이 지난 2015년 출시한 여성 유산균 엘레나는 국내 대표 프리미엄 여성 유산균 브랜드로 성장해 왔다. 엘레나는 누적 판매량 580만병, 네이버 쇼핑물 11만 개 리뷰 평균 4.8점 등을 기록하며 국내 유산균 시장에서 '여성 유산균', '질 건강 유산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엘레나 테아닌'은 여성의 질과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유락스 프로바이오틱스에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 안정 효과를 주는 테아닌 성분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 프리메라

#### '나이아시카' 크림·쿠션

아모레퍼시픽은 고효능 저자극 브랜드 프리메라에서 '나이아시카' 크림과 쿠션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나이아시카' 제품군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시카 B5' 성분을 조합한 것이 특징으로 피부 속광을 개선하고 피부 장벽을 재생하는 효과를 갖췄다.

'나이아시카 수딩 글로우 워터리 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부 장벽 회복 기능성 심사를 완료했다. 바르는 즉시 피부 손상 장벽이 87% 회복하고, 사용 3일 만에 피부 속광까지 28%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나이아시카 워터리 크림 쿠션'은 이러한 나이아시카 수딩 글로우 워터리 크림의 효능을 담은 메이크업 제품이다. 제품 본체에 미세 메쉬망이 적용돼 통해 크림 제형 내용물을 뭉침 없이 매끈하게 바를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

# 원광시편 원더라이프



원광디지털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1차 모집기간  
2024.12.01.(일) ~ 2025.01.10.(금)

2차 모집기간  
2025.01.22.(수) ~ 2025.02.14.(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 현대차그룹, 싼타페·EV3 ‘세계 여성 올해의 차’ 수상

싼타페, 다양하고 실용적 기능 갖춰 EV3, 편의사양·가격 경쟁력 우수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WWCOTY)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 EV3가 각각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문과 콤팩트 SUV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는 5개 대륙 55개국 82명의 여성 자동차 기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안전 ▲주행 ▲기술 ▲편안함 ▲효율성 ▲친환경 ▲가성비 ▲성 평등 측면에서 차량을 평가한다.

올해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최소 2개의 대륙 또는 40개국에서 출시한 8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도심형 차 ▲컴팩트 SUV ▲



현대차 싼타페.

대형 SUV ▲대형 승용 ▲4륜구동 및 픽업 ▲퍼포먼스 및 럭셔리 등 총 6개의 부문에서 각각 최고의 차량을 선정했다.

싼타페는 H 모양의 독창적인 램프와 직선적인 디자인, 넉넉한 실내공간이 인상적이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EV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으로 구성된 파워트레인과 다양하고 실용적인 기능을 갖췄다고 호평 받으며 최고의 대형 SUV로 선정됐다.

EV3는 유럽 WLTP 기준 최대 605km의 충분한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우수한 품질, 다양한 편의사양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의 콤팩트 SUV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 세계 여성 올해의 차 부문별 수상 차량 중 최고의 차는 세계 여성의 날이 될 전인 3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동원F&B, 제주 수산물 경쟁력 강화

동원F&B가 제주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을 맞잡았다. 동원F&B는 9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 수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유통·판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성용 동원F&B 대표이사(왼쪽)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원F&B



인하대, 해양환경보전 연구 성과 공유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대학교와 '인천 특화 해양환경보전 연구협력·인재양성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인하대와 인천대는 지난 1년 동안 해양시민과학 인재 양성 교육과 지역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정책방안 마련에 매진했다. /인하대

## 쿠팡 '이달의 할인추천' 행사

쿠팡이 새해를 맞아 다양한 식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이달의 할인추천' 행사를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달의 할인추천'은 매달 기념일, 날씨, 트렌드 등에 맞는 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다.

쿠팡은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매주 다른 테마로 행사를 진행한다. 첫 주에는 티·전통차를, 이어 견과류·원물 간식과 효도 식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설 연휴가 있는 마지막 주는 전체 식품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설 연휴 할인 워크가 진행된다.

아울러 추천 식품 카테고리도 마련해 인기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인재현 기자 wotja4187@

## 인사

◆한국산업은행 ◇지역성장부문 단장 △도곡 김은영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장급 보직 △전북지역본부장 박춘수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김병만

## 부음

▲정은산 씨 별세, 김지성(SBS 정치팀장)·지산(키움증권 전략기획부문장)씨 모친상 = 9일 오전 0시, 이대서울병원(발산역)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02-6986-4440

▲고준우씨 별세, 고정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충북본부장 직무대리)·고정일(서울시농수산물공사 차장)씨 부친상, 홍현표(한국IBM 부장)·김정희(㈜초아 E&C 부사장)씨 장인상 = 9일 오전 2시, 청주 효성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043-221-4004

## 소공연, 지난해 소상공인 8만여명 지원

송치영 회장 “경영환경 개선 앞장”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2024년 한해 기업·단체와 함께 진행한 소상공인 상생 사업을 통해 8만여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9일 소공연에 따르면 KB금융그룹과 소상공인 생계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진행해 6만5000여명에게 30만원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우리금융그룹, 사랑의 열매와 함께 '착한가게'로 선정된 사업장 300곳에는 무료 해충방제 및 방역과 함께 냉난방기 내부청소를 제공했다. 무료 간판 교체와 사업장 외관정비도 추진했다. CJ대한통운과는 영세 소상공인에 물류비, 친환경 패키징 지원과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소공연은 2023년 6월 네이버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연합회 소속 16개 광역시도 지회 및 기초지부와 협력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을 이어왔다.

1000여 곳 이상의 스마트플레이스 가게 정보 등록 및 활용 교육과 함께 요즘 인기 있는 '소상공인 함께가게' 카테고리 등을 통해 소상공인 가게 200여 곳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전국 5개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축제와 연계한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사진)은 “소상공인연합회는 76만 소상공인의 대표 단체로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HS효성, 온라인 뉴스레터 신규 발행

글로벌 임직원 소통 강화

HS효성이 온라인 뉴스레터를 새롭게 발행하며 글로벌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HS효성은 글로벌 임직원 대상으로 기존 인쇄 사보 대신 HS효성 온라인 뉴

스레터를 처음으로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뉴스레터 발행은 HS효성이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해가는 과정의 하나로, 회사의 비전과 가치, 주요 소식 등을 전 임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 SGC에너지,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획득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 SGC에너지가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에 집중한다.

SGC에너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SGC그룹사 SGC E&C(SGC이앤씨)와 SGC솔루션도 가족친화인증을 이어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 문화 조성 등을 평가한다.

SGC그룹은 지난 2021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4년 12월 재인증했다. /차현정 기자



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왼쪽 네번째)과 김도경 LIG넥스원 C4I연구소장(왼쪽 다섯번째)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KT

## KT-LIG넥스원, 저궤도 위성 개발 맞손

6G 위성통신 시스템 시뮬레이터 구축

KT는 LIG넥스원과 민·군 겸용 저궤도 위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은 '스페이스X', '카이퍼 시스템즈', '원웹'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해외 위성국(위성과 통신을 위해 지상에 설치되는 무선국)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보안이 중요한 국방용 통신에서 해외 기업 위성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국형 저궤도 위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사는 6G 저궤도 위성 통신시스템 및 양자암호통신의 선형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군 겸용 저궤도 위성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군용 저궤도 전술위성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국방 통신위성 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양사는 우선 6G 위성통신 시스템 시뮬레이터를 공동 개발해 저궤도 위성군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뮬레이터 개발에서 KT는 6G NTN(비지상 네트워크) 기지국 파트를 담당해 성능 분석과 요구사항 검증을 진행하고, LIG넥스원은 저궤도 위성 파트 및 위성통신 부분을 담당할 예정이다.

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선 KT의 무선 양자암호통신 기술과 LIG넥스원의 초정밀 지향 추적기술이 활용된다. 양사는 초장거리 무선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개발해 향후 군 이동전술망 사업 및 위성 암호체계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오늘의 날씨**

1월 10일 (금)  
음력 : 12월 11일

수도권 날씨  
**-12 ~ -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47 | 해질 / 17:32

연천 -18/-5, 동두천 -17/-3, 가평 -17/-3, 파주 -18/-3, 서울 -12/-2, 양평 -14/-2, 인천 -11/-2, 수원 -11/-2, 용인 -11/-2, 평택 -14/-1, 백령도 -5/-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 전기차판 ‘알테쉬’가 온다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불과 1년여전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광고 카피를 앞세운 ‘알테쉬’ 열풍이 국내 중저가 소비재시장을 뒤흔들었다.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위인의 앞 글자를 딴 별칭이 알테쉬다. 이들 3사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반적 무역이나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 배송하는 ‘직구(직접구매)’ 채널이다. 중국 내의 절대적 생산원가 비교우위에 최소한의 물류유통 비용을 더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다. 이들은 미국을 비롯 전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전문학적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불과 2~3년 사이 업계 판도를 뒤집었다. 미국판 다이소인 1달러숍 달러트리(C커머스의 시장잠식으로 막대한 적자를 내며 한때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다.

C커머스 3인방이 한국·일본 공략에 본격 나서자 국내 유통업계는 초비상이었다.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는 엄청난 반

향이 일상화됐다. 그도 그럴것이 생활용품 등 대량 생산 제품들의 가격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직구업체 판매가격의 절반 이하 심지어 10분의 1 수준에도 제시됐기 때문이다. 테무의 최근 월간 활성이용자수가 580만명대로 지난해 4월 700만명선에서 그 열기가 다소 식었지만 재점화는 시간문제다.

지난해에는 C커머스에 의한 중국산 저가 소비재의 공습이 있었다면 올해는 내구 소비재가 한국시장을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주자는 BYD, 지리자동차 등이 만드는 전기차다. 전망이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메이커 BYD는 오는 16일 국내시장에 승용브랜드를 정식 출범한다. 주력 제품인 소형 SUV, 아토3, 해치백 돌핀 등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살피며 순차적으로 공세를 펼 것이다. 지리자동차는 연내에 전시장장을 열고 전기차 지커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진출에 추동력을 더해줄 사건이 공교롭게 지난해에 생겼다. 지난해 12월과 8월에 중국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가 국내 1위 렌터카업체 롯데렌탈(시장점유율 21%)과 업계 2위 SK렌터카

(15%)의 지분 56%와 100%를 각각 1조 6000억, 8200억원에 인수했다. 중국계 자본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약 36%를 차지했다. 중국 업체들은 두 렌터카 회사를 교두보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2차전지 및 자율주행부문을 집중 육성해온데 이어 완성차의 해외시장 공략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나 EU보다 진입장벽이 허술한 한국시장을 전초기지로 삼았다면 국내 1,2위 렌터카 업체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중국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렌터카 경험’을 통해 해소한다면 법인 시장을 넘어 자가용 시장까지 빠르게 잠식할 수 있을 것이다.

BYD는 최근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에 전기차 1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독일에서도 최대 렌터카 회사와 6년에 걸쳐 전기차 10만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흘러가는 정황은 전기차판 ‘알테쉬의 공습’이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어떤 제조업보다 심대하다.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주권 확보를 위해 민관의 치밀한 고민이 시급한 때인 것 같다.

/자본시장부장 skc8472@metroseoul.co.kr

# ‘절단’과 ‘재앙’의 시간이 다가온다



기자 수첩  
박 태 흥  
(정치경제부)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몇년 동안 법정에서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마지막에 무죄를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1월 26일에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가 열린 자신의 모교 서울대를 찾아한 말이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학생의 질문이 들어오자 “제가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 검찰

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 뒤 꺼낸 말이다.

당시 저 말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기자는 ‘원론적인 대답만 해도 충분할텐데 왜 굳이 저런 말을 해서 강의실을 순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검찰의 중립성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은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절단’·‘재앙’ 같은 말을 섞어서 사용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말은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한남동 관저에서 극우 세력과 경호원에 둘러싸여 버티기에 돌입했다. 극우 세력에게 자신의 서명이 담긴 응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메시지도 꾸준히 내며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 사이 관저 주변은 철조망과 버스로 일종의 요새처럼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완강한 저항에 수포로 돌아갔지만, 법원이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 테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겠다고 관저앞을 서성였지만, 지지층의 눈도장 찍히기에 지나지 않고, 자신들도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없을 알고 있을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물리적 충돌이나 시민의 부상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윤 대통령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 당시 서울대에서 한 윤 대통령의 말중 유일하게 진실되게 다가왔던 ‘절단’과 ‘재앙’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성과를 내야 한다. 그 시간이 앞당겨질수록 시민들의 안정과 평온도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pth7285@

오늘의 운세 1월 10일 (음 12월 11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자식이 능력을 인정받으니 날아갈 듯하다. 48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 신경 쓰자. 60년생 극심한 경쟁은 패배로 온다. 72년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좋으나 빨리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 84년생 지금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 소** 37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할 일을 찾아보자. 49년생 정신적 지주는 공부에서. 61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73년생 자신의 잔재주를 너무 위세하지 않도록. 85년생 갈 곳이 없으면 집안 청소라도 할 것.
- 호랑이** 38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50년생 버가 익듯이 창의력이 번득 빛난다. 62년생 희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74년생 일이 있으면 더울 시간도 별로 없을 듯. 86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 토끼** 39년생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든 얻을 수 있겠다. 51년생 시장갈 때 메모를. 63년생 상사의 비리를 캐고 그만 하지 말고 자신부터 돌아보라. 75년생 용이 다시 돌아와 얼굴을 내미는 격으로 희망적. 87년생 물 부족으로 지체가 된다.
- 말** 40년생 엄동설한에도 김치만 있으면 걱정 끝이다. 52년생 금전 문제로 이득 발생. 64년생 억장 무너지지 않게 피성을 조심. 76년생 짙은 향기는 머리가 아프니 향수는 사절로 씻는 습관을. 88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에 가서 눈 즐기기.
- 뱀** 41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르지 않게 행동. 53년생 비행기에 퍼스트클래스가 있듯이 상류층은 있는 것. 65년생 선택이 잘되어 이득 있다. 77년생 곧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 89년생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약속은 지켜야.
- 닭** 42년생 병도 약도 내 하거나. 54년생 겨울이 있으나 곧 봄의 소식이 올 것. 6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78년생 횡단보도 건널 때 사람이 우선이어서 핸드폰은 건네서 보라. 90년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니 팔자를 펼쳐보는 것.
- 개** 43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5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 67년생 인생하다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지 않도록. 79년생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님을 인식. 91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로 달래보는데.
- 원숭이** 44년생 바람이 불어도 다 흔들리지 않는다. 56년생 길이 멀어도 시작. 68년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풀어내는 해법도 다른 법이니 누구 원망 마라. 80년생 마음이 혼란할 때는 독서로 길을 찾아보자. 92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자.
- 닭** 45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 57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69년생 실력이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없다. 81년생 희망에는 고리가 없으니 내가 찾아야 하는데 살다보면 할 수 없는 것. 93년생 계단에서 발목 조심.
- 돼지** 46년생 목표가 생긴 것으로도 발전은 다시 거듭된다. 58년생 새에게 날개가 없다면 어찌해야 하나 생각해볼 것. 70년생 지나친 절약으로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82년생 의문이 든다는 것은 신념이 없기 때문 아닐까. 94년생 새로운 희망을 품자.
- 돼지** 47년생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 건강하다는 징표. 59년생 자녀들이 반려동물을 때리지 않도록. 71년생 늦은 재혼은 백두여신(白頭如新). 83년생 강남제비는 봄에 오고 기러기는 떠난다. 95년생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운수소란이라는 말을 한다.

# 김상회의四季 사주 활용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 관과 살이 혼란하게 뒤섞인 관살혼잡 사주인데 관이 어지럽다 보니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다. 식신 상관의 기운이 강해서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하기 원하는 성향이라 사업을 하는 건 괜찮아 보인다. 문제는 운세가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기는 움직이면 손해를 보는 운세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운세의 좋고 나쁨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시작한다. 다음은 사업 시작을 일단 미루는 것이다. 또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고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시작한다.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차이 날 것이다.

사주와 연관된 운세를 보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일기예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사주에서는 비가 올 것이라고 했고 곧 비가 왔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레도 그냥 길을 가면서 내리는 비를 모두 맞는다.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길을 나선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서 행동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우산을 챙긴다. 우산을 챙겼으나 걸어가면서 비에 조금이라도 젖는다. 사주의 활용에 따라 풍파는 어느 정도 피해서 갈 수 있다. 우산을 챙기거나 조금 늦게 길을 나서는 방법으로 비를 피하거나 잠시 젖는다.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운세가 좋지 않은 시기라면 그에 알맞은 대비를 하면 된다. 여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주를 보는 것이다. 나쁜 운세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단단히 대비하고 시작하면 타격을 피할 수 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사주를 운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나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9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94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라피트 세계 유일 앰버서더... 김성국 소믈리에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김성국 조선포도호텔앤리조트 총괄 소믈리에.

김성국 조선포도호텔앤리조트 총괄 소믈리에이자 도멘 바롱 드 로칠드(DBR)의 앰버서더가 프랑스 보르도에서도 뽀이악 지역의 와인인 '앙세이앙'을 디캔팅하자 주변이 금세 와인의 향으로 가득 찼다. 디캔팅은 숙성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와인을 디캔터라는 병에 옮기는 작업이다. 단시간에 공기과 충분히 접촉토록 해 잠재되어 있는 맛을 끌어낼 수 있다. 김 소믈리에의 준비된 앙세이앙이 2020년 빈티지란 말에 바로 디캔팅에 들어갔다. 4년이 지났지만 뽀이악 지역 특유의 강건함에 부드러운 메틀로 비율이 높다고 해도 앙세이앙의 기본 잠재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와인을 소재로 해 유명세를 떨친 일

본 만화 '신의 물방울' 첫 편은 주인공 칸자키 시즈쿠의 화려한 디캔팅 장면으로 시작한다. '와인 방울이 줄기를 이루

며 붉은 명주실처럼 똑바로 병 주둥이로 떨어져 들어간다. 만화 속의 장면을 김 소믈리에가 재현한 듯 했다. 750l 와인 한 병을 디캔터에 옮겨담는 짝지 않은 시간 동안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과감한데, 또 섬세했다. 하긴 고객이 찍어 짧게 올린 '로마네 콩피' 디캔팅 영상만으로도 하룻밤 사이 300만뷰가 넘게 나왔던 그 '슈퍼솜'이 김 소믈리에니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먼저 김 소믈리에가 브랜드 앰버서더로 있는 DBR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와인에 문외한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샤토 라피트 로칠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프랑스 보르도 1등급인 5대 샤토 가운데 하나인 브랜드 앰버서더는 전 세계에서 김 소믈리에 한 명 뿐이다.

앙세이앙은 샤토 라피트 로칠드가 100년 만에 새로 선보인 와인이다. 대표 와인인 샤토 라피트 로칠드 외에 19세기에 세컨드 와인인 '카뤼아드 드 라피트'를 내놓은 이후 처음이다. 앙세이앙의 첫 번째 빈티지인 2018년은 로칠드

가문인 라피트를 인수한 지 1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김 소믈리에의 "앙세이앙은 기존 뽀이악 지역의 강건한 와인보다는 메틀로 품종이 많이 들어가 기름진 부위의 그릴 스테이크보다는 안심 스테이크와 더 어울릴 만한 와인"이라며 "뽀뽀하기보다 부드러운 타넴으로 볼고기 등 한국 요리와도 마시기 좋다"고 설명했다. 2020 빈티지 기준으로 메틀로와 카베르네 소비뇽의 비중이 각각 63%, 37%다. 앙세이앙은 가문에서 6대로 바통을 이어받은 사스키아 드 로칠드의 작품이기도 하다. 사스키아가 와인러리 경영을 맡은 이후로는 보수적인 DBR에도 그야말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김 소믈리에의 "2018년 이전만 하더라도 라피트의 포도나무는 모두 같은 모양, 같은 수의 포도송이로 과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사스키아가 오너를 맡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포도밭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

했다.

그는 "지금은 포도밭에 야생화와 잡초까지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라피트를 포함해 DBR의 와인러리들은 각각의 테루아와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정신은 공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DBR 내에서 보르도의 혁신과 모험을 보여주는 브랜드인 '빠라디 카세이유' 역시 포도밭 주변으로 여러 생물이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앙투르 드 메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산 위에 올라가 바라보고 있으면 천국 같은 느낌이라 파라다이스를 뜻하는 빠라디로 이름을 지었다.

앰버서더로서 김 소믈리에가 말하는 DBR의 원칙은 균형감이다. 포도품종이나 특정 스타일을 떠나서 말이다. 앙세이앙 역시 균형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매해 포도품종의 비율은 바뀔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압착되어버린 고독한 삶

인간은 시간의 힘에 짓눌려 소멸하지만, 고전은 세월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시간의 압력을 견뎌내며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설령 책이 불에 탄다 하더라도 고전은 불사조처럼 재 속에서 부활한다. 검은 잿더미는 거름이 돼 나무에 흡수되고, 이는 다시 고전의 뼈와 살이 될 재료로 쓰인다. 체코의 국민작가로 불리는 보후밀 흐라발이 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고전의 저력을 보여주는 명작이다.

폐지 압축공인 주인공 한타는 소설의 제목처럼 '너무 시끄러운 고독' 속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의 동료는 말 없는 기계 한 대. 한타는 압축기와 함께 매일 머리 위로 쏟아지는 폐지와 씨름한다. 한타가 압축기로 사형 선고 내리는 종이 중에는 그가 사랑해 마지 않는 책들이 켜 있다. 겉으로 잔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도 시끄럽기에 그의 인생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폐지 압축공으로 일하며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한타는 자신의 업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된다. 그가 숭배하는 대상인 책('파우스트', '돈 카를로스', '히페리온',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를 파괴하는 일로 돈을 벌기 때문이다. 한타는 고기 쓴 종이에 말라붙은 피를 빼는 파리처럼, 책에 얼굴을 파묻고 괴데, 실러, 힐데린, 니체의 사상을 게걸스럽게 빨아들인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씩 맘에 들지 않지만, 책에 폭 빠져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여행하는 황홀한 경험을 낙으로 근근이 살아간다.

손에 책만 쥐어주면 행복해지는 단순한 인간, 한타에게도 존재의 위기가 찾아온다. 그의 압축기 20대 분량의 일을 해내는 거대 기계



#### 너무 시끄러운 고독

보후밀 흐라발 지음/이창실 옮김/문학동네

가 등장한 것. 수압 압축기가 있는 작업장을 찾은 한타는 기계를 보고 금세 겁에 질린다. 그는 저 거대한 압축기가 자신과 같은 늙은 압축공들을 몰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작업장을 둘러보던 한타는 노동자들이 손에 낀 장갑을 보고 모욕감을 느낀다. 그는 종이의 감촉을 더 잘 느끼고 두 손 가득 음미하기 위해 절대로 장갑을 끼지 않았는데, 이곳에선 그런 기쁨에, 폐지가 지닌 비길 데 없이 감각적인 매력에 아무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책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찾겠다는 열망으로 그가 종이 더미에서 구해낸 장서들과 함께 한타는 자신의 생이 끝장났음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폐지가 가득한 압축통에 자신의 몸을 넣고 녹색 버튼을 누른다. 압축통 벽에 눌러 다리와 턱이 들러붙고, 책의 단면이 한타의 늑골을 뚫고 들어온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감탄했던 탈무드의 구절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144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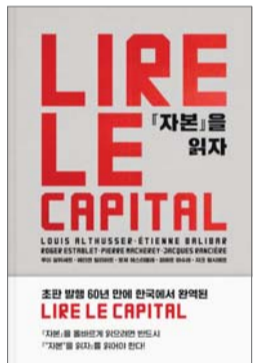
### 자본을 읽자

에티엔 발라바르 외 4명 지음/진태원·배세진·김은주·안준범 옮김/그린비

오늘날 노동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진단에 동의한다면, 이를 가지고 마르크스가 씨름해 써낸 저작 '자본'을 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알튀세르가 지적하듯 '자본'을 그 자체로 읽는 것은 부족하다.

마르크스주의 철학 없이 '자본'을 본다면, 과거의 독자들처럼 교조화라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다. 저자들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자본' 또한 올바른 방식으로 독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자연 과학이 과학 철학의 도움을 통해 이해되듯, 마르크스의 '자본' 또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통해 더욱 적합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1152쪽, 7만2000원



### 쓰기의 미래

나오미 배런 지음/배동근 옮김/북트리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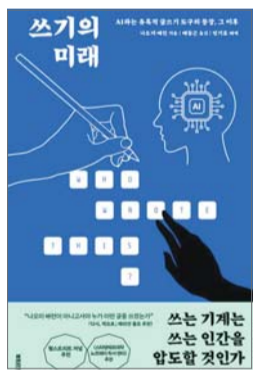
2022년 12월,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첨단 IT 기술은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맞춤법 검사기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가 돼 편리함을 제공한다. 명실상부 인류의 진보라고 할 만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기능들이다.

우리는 이런 도구를 통해 생산성과 효

율성 면에서 이득을 취하고, 금전적·시간적 재화를 더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빛은 그림자를 동반한다. '기만적일 정도로 편리한' 이 도구들을 계속 사용하면, 인간 고유의 언어 능력은 어떻게 될까. 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언어와 글쓰기의 진화, 그리고 AI가 제시하는 복잡함과 제와 기회를 조명한다.

628쪽, 2만7800원



### 새로고침 서양 미술사 세트

이진숙 지음/둘베게

저자는 예술가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르네상스부터 현대 미술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흐름을 '시대와 인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한다. '새로고침'이라는 제목은 기존 서양미술사를 나름의 관점에서 새롭게 써본다는 뜻과, 미술사를 뒤늦게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예술가들이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자

기만의 방식으로 포착하고, 새로운 미학 속에서 드러낸 풍부한 인간의 모습이 곧 미술의 역사다. 미술사의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예술의 역사를 써 내려간 101인의 창조적인 예술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작품, 시대적 과제, 창의적인 대응, 개인적인 삶의 궤적,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탐구한다.

1534쪽, 9만9000원



▲손흥민, 리버풀전 팀 내 최저 평점... "영향력 없었다" /사진 뉴시스  
▲캠프는 다가오는데... 프로야구 FA 계약 17일째 '조용'

▲국가대표 의성군청 남자컬링팀, 토리노 동계대회 출전  
▲강신욱 체육회장 후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사망자도 선거인단 포함"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핸드볼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  
▲알라딘 '한국문학의 얼굴들'에 소설가 김애란·시인 이병률



TOUS les JOURS

Master Franchise Agreement  
Sony

뚜레쥬르  
할랄시장  
정조준  
니



metro®

Life

현대차그룹  
싼타페·EV3  
'세계 여성 올해의 차'  
L4



# 부드럽고 폭신한 맛에 식감까지 세계가 빠진 '기네스 롤' 답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파리바게뜨 '실키롤케익'

1988년, 국내 첫 프랑스푹 베이커리 선봬  
매장서 직접 굽는 '베이코프'로 신선함↑

파리바게뜨 탄생과 함께 '실키롤케익' 출시  
선물용으로 탁월... 3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세계 최다 판매 롤케익으로 기네스 신기록  
지나해, 등재 4주년 맞아 '롤케익' 한정판도

국내 베이커리 문화는 파리바게뜨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8년 국내에 처음 프랑스푹 베이커리 문화를 선보인 파리바게뜨는 30년 이상 베이커리 업계를 선도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양산빵을 중심으로 진열, 판매하는 매장이 주를 이뤘던 반면, 1988년 6월 파리바게뜨 광화문점이 문을 열면서 윈도우 베이커리 문화를 고객에게 선보이기 시작했다.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굽는 베이코프(Bake-off) 방식을 도입해 갖 구운 신선한 빵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도 파리바게뜨가 국내 최초다.

이후 가맹점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점포 수와 인지도를 늘린 파리바게뜨는 크루아상, 페이스트리, 바게



지나해 한정판판매한 1988 실키롤케익.

트 등 프랑스푹 제품을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며 모든 세대의 입맛에 맞는 제품들을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1988년 5월 11일 출시한 파리바게뜨 '실키롤케익'은 30년 넘게 스테디셀러에 자리매김했다.

전용 밀가루에 신선한 달걀과 버터를 넣고, 부드럽고 폭신한 스펀지케이크에 버터크림과 건포도가 더해진 식감이 특징이다. 선물하기도 좋고 함께 나눠 먹기도 편해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선물류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롤케익으로 기네스 월드레코드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다. 파리바게뜨는 실키롤케익의 우수성과 판매 성과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세계 신기록 등재를 추진했고, 지난 2020년 일정 기간 최다 판매된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네스 세계기록 인증을 받았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간 한국, 중국,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5개국에서 1249만8487개가 팔렸다. 약 12초마다 1개씩 팔려나간 셈이다. 판매된 제품을 길로 환산하면 약 3000km로 프랑스 에펠탑(300m) 높이의 9300배, 에베레스트산(8848m) 높이의 339배다.

기네스 인증을 받은 후로는 1일 평균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제 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기네스롤'이라고 불리는 등 특별한 선물로 재조명됐다.

지나해 파리바게뜨는 실키롤케익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롤케익'으로 등재된 지 4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한정판 제품 '1988 실키롤케익'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 롤케익'로 오랜 시간 사랑 받은 케이크라는 의미를 담아 기존 실키롤케익 대비 두 배의 길이인 47cm 크기로 제작해 용량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과 재미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SPC그룹은 올해 파리바게뜨의 글로벌 사업 조직을 개편하는 등 해외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조직에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AMEA) 본부를 신설했으며, 이는 올해 초 본격 가동 예정인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제빵 공장 완공을 앞두고 실시한 것이다. 2조 달러 규모의 세계 할랄(Halal) 푸드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시장 경험이 많은 경영자들이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SPC그룹은 미국에서도 텍사스주 벌리슨 시에 현지



파리바게뜨는 실키롤케익의 우수성과 판매 성과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세계 신기록 등재를 추진했고, 지난 2020년 일정 기간 최다 판매된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네스 세계기록 인증을 받았다. /SPC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본부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향후 진출 예정인 중남미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해외 각 지역 본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 글로벌 사업을 현지화 하고, 국내 본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법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총 14개국에 진출했으며, 63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30년까지 1만2000개 매장 달성이 목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바이든, LA 산불에 '마지막 순방' 취소...중대 재난 지역 선포 /사진 뉴시스  
▲트럼프 우크라 특사 "트럼프, 우크라전쟁 100일 내 종식 원해"

▲WEF "시로 인해 전 세계 기업 41% 인력 감축 계획"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 지난해보다 한 단계 ↓...1위 싱가포르

▲中 관영 매체 "韓 여당, 중국인 개입설 일방적 주장...책임 전가"  
▲'프랑스군 철수' 차드 대통령궁에서 총격 사건...19명 사망